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1995. 10

全 賢 俊(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 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정치중심사회이자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인 북한의 향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적 특징은 물론, 김정일 자신 및 주변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1994년 「김정일리더십 연구」에 이어 1995년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제목의 타당성문제, 권력엘리트 신상에 대한 자료의 미비,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 자료검증자의 부족 등 연구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과 북한 귀순자의 협조로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결과물을 내게 되었다. 물론 이 연구는 보다 많은 자료와 더욱 심층적인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북한연구와 통일정책 입안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5. 10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1974년 후계자 피택 이후부터 김정일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적극지지자들을 권력엘리트로 등용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어떤 충원원칙에 의해 등용되었는가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의 소유자인가를 분석한 후, 개별 권력엘리트들의 개인적·정책적 성향을 구명하였다. 분석변수는 김정일과의 친·인척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이며, 분석대상은 상위 서열 100명이다.

1. 北韓 權力엘리트 充員原則의 變遷

1945년 해방후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하에 국가건설 인력 확보 방안으로 '통일전선'을 통한 구엘리트 확보정책과 대학 설립을 통한 신엘리트 양성정책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간부조건으로 선진이론의 소유, 충실한 맑스-레닌주의자,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애국자, 국가정치생활의 열성적 참가자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당시 각 파벌 내에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한 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의 동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념성을 권력엘리트 충원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던 1950년대는 김일성이 많은 난관에 봉착한 시기였다. 김일성의 당면과제는 반대파들의 척결, 한국전쟁 패전책임소재 규명, 한국전쟁 복구문제였다. 김일성은 한국전쟁패전 책임을 연안파인 무정과 남로당에게 전가, 숙청하였고, 자신의 발전노선 관철을 위해 연안파를 숙청하였다. 1956년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은 종파척결을 간부등용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당적지배 강화를 위해 당성을 강조하였다. 1950년대는 권력엘리트에게서 파벌에 따른 연고주의 보다는 당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였다.

1960년대 들어 김일성은 단일화된 정파를 토대로 경제발전 드라이브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자신의 이상화를 본격화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의 간부정책은 2중적이었는 바, 경제발전계획 완성에 필요한 경제전문가의 양성과 김일성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이념정치전문가의 양성이 그것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1960년대의 일관된 간부등용원칙은 충성심 위주의 당성과 전문성 고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과오를 범한 간부들과 구인테리들에 대한 포용정책, 즉 정치적 탈락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수립, 현재까지도 운용하고 있다.

197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김정일로 수령후계자가 결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1974년 후계자

피선 이후 김정일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권력엘리트 등
용원칙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
칙」이었다. 이 원칙은 김일성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김정일로
의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무조건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세대교체문제가 중
요한 문제였으나 세대교체의 기준은 연령문제가 아닌 의식
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간부등용정책은 충성심 우위
의 세대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는 김정일이 제반분야의 실무지도를 통해 권력기
반을 확고히 한 시기였고, 김정일후계체제와 관련 경제발전
과 대외개방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간부사업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역시 전문관
료들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1980년대가 수많은 경제관련 권
력엘리트들이 명멸해간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경제발전
에 기울인 심혈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전문관료들의 등장과 함께 당정치국에
현역군인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시작된 1990년대의 간부정책은
1980년대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1990년부터는 당비서
국 비서들이 혁명 2세대 일색으로 등용되었다는 점이 특이
하다. 그러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전문성이 보다 많이 요
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충성심 우위의 원칙은 지속되었다. 다만 세대교체로 인해 혁명성과 당성이 부족한 관료들의 등장을 시인하고 세도와 관료주의의 척결을 간부정책의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는 점이 변화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권력엘리트 충원원칙은 이념성→당성→당성·전문성→충성심 등으로 변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金正日 權力엘리트의 社會經濟的 背景 分析

김정일 정권하의 사회경제적 배경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김정일 친인척이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신성가족'들이 권력상층부에 대거 등용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김정일 친인척 12명이 서열 100위 내에 등용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출신성분을 중요시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빨치산과 빨치산 2세, 빨치산의 후예인 군부인사들이 많이 등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격대국가인 북한에서 빨치산들이 득세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빨치산세대는 100명 중 13명, 빨치산 직계후손인 2세는 100명 중 10명, 빨치산의 후예인 군장성은 101명 중 31명이 각각 등용되어 있다.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당-군복합관계에서 도출된 빨치산 및 그 2세, 군부에 대한 우대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출신학교로는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해외유학을 거친 자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은 100명 중 25명, 김일성종합대학출신은 100명 중 34명, 해외유학파는 100명 중 47명이 등용되어 있다. 이러한 학맥 중심의 간부등용정책은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지나치게 노령화되어 있다. 70~80대의 노년이 100명 중 50명, 50~60대가 100명 중 19명이 진출해 있다.

다섯째, 북한에서 출신지역은 큰 의미가 없다. 한때는 함경도 출신들이 과다대표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방주의 및 파벌형성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현재 북한 내에는 현저한 지역감정이나 지역파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출신이 100명 중 23명, 평안도출신이 100명 중 21명, 평양특별시출신이 100명 중 5명, 남한출신이 100명 중 6명이 등용되어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특정지역이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결정적 조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남한지역출신이 상위 권력엘리트 100위 이내에 6명이나 진출해 있다는 것은 북한이 출신지역보다는 혁명성, 즉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권력엘리트 등용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권력엘리트 구조의 특징은 향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인척구조에 대한 불만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非친·인척 권력엘리트에게 내재된 불만이 지위상승문제 내지는 김정일 이후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학교 중심의 권력배분은 여타학교출신들의 소외와 이로 인한 갈등발생 여지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출신들에 대한 특혜는 사회경제적 출신성분보다는 당성과 충성심을 중요시한다는 기본적 간부배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학교출신자들의 지위상승 좌절감은 간부선발의 무원칙성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정권 내지는 체제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당·정·군 중첩구조와 군인사의 과다대표는 관료주의와 부패, 군사비과다지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통한 직업주의의 강화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부문간의 영역장악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나친 노령중심구조는 권력엘리트 교체의 지연을 낳고 이로 인해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신진세대의 증가는 더욱 많은 지위를 요구하게 되고 지위부족은 이들의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3. 金正日 政權의 職能別 權力엘리트 性向 分析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정책적 성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직능간 권력엘리트들 성향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은 정치노선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이념적 노선차이 발생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고, 둘째, 권력엘리트들의 중첩적 지위보유로 인해 의견차이가 사전에 조정되기 때문이며, 셋째, 설사 상이한 의견을 내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공식매체는 물론 일상행동에서조차도 성향을 판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치이념적 성향이 아닌 경제발전 우선 순위 내지는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수적으로는 소수

이고 정도도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념·조직·군사부문의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방지향적인 엘리트들의 입지가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정책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김정일 유일지배체제하에서는 권력엘리트의 성향이 실리주의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첫째,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둘째, 경제체제의 기본모순에 의해 북한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셋째, 김정일 개인이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은 제한적이고 신중한 개방정책을 채택하리라고 예상되지만 개방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조용할 권력엘리트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결국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충성심과 당성에 토대한 전문가의 등용은 이념적·체제적 이유에서 우선시될 것이 분명하지만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방적응적 내지는 개방지향적 전문가 등용도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4. 結 論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유혼 및 위임통치' 시대의 북한 권력

엘리트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정권초기에 강조되던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적 토대로부터 충성심, 혁명의식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권력엘리트로의 진입요건 중 특정 학력이 중요시되었다.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동구유학은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친인척이 상위 엘리트그룹에 다수 진출해 있다. 넷째, 빨치산세대는 물론 빨치산 직계 2세들이 상위 권력엘리트에 다수 등용되어 있다. 다섯째, 권력엘리트들의 당·정·군에 걸친 중첩적 지위보유 현상이 두드러졌고 특히 현역군인들의 상위 지위로의 등용율이 매우 높다. 여섯째,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혁명2세대, 즉 전문지식을 갖춘 신진엘리트 그룹의 등용이 점증하고 있다. 일곱째, 출신지역은 비교적 균등하였으나 상위권력서열에 함경도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과다대표되고 있다. 여덟째, 상위 권력엘리트들 중 철직경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홉째, 권력엘리트들간 정책적 성향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경제발전 우선순위 내지는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전향적 의견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성은 중첩적 지위보유로 인해 당·정·군간 교류협력체제가 견고하고 친·인척, 빨치

산출신과 그 2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특정학교 등 귀속주의적 충원원칙을 통해 부문간 엘리트들의 일체성이 강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상의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1974년 김정일 등장 이후부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중심의 점진적 교체원칙에 입각, 등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일 유일 지배하에서도 대폭적인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노선상의 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지만 경제정책선택문제에서는 미미하나마 개방지향적 성향의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주변환경 변화와 함께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의 충원방향은 개방정책 가속화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해 충성심을 기본으로한 경제전문가집단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目 次

第Ⅰ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및 論点	3
第Ⅱ章 北韓 權力엘리트 充員原則의 變遷	7
1. 社會主義圈의 權力엘리트 充員原則: 舊蘇聯·中國	7
2. 北韓 權力엘리트의 充員原則 變遷過程	11
3. 小 結	44
第Ⅲ章 金正日 權力엘리트의 社會經濟的 背景 分析	48
1. 黨·政·軍 權力엘리트에 대한 概觀	48
2. 權力엘리트의 社會經濟的 背景 分析	52
3. 小 結	78
第Ⅳ章 金正日 政權의 職能別 權力엘리트 性向 分析	81

1. 職能別 權力엘리트 性向 分析.....	83
2. 小 結.....	134
第V章 結 論	136
參 考 文 獻	141
附 錄	151

表 目 次

〈표 1〉 노동당 중앙위원 파벌구성	16
〈표 2〉 정치적 탈락 경험자.....	31
〈표 3〉 비서국 비서 등장현황.....	41
〈표 4〉 북한 사회구조	49
〈표 5〉 당-정-군 겸직관계	53
〈표 6〉 김정일 친인·척.....	57
〈표 7〉 빨치산 세대.....	58
〈표 8〉 빨치산 2세	59
〈표 9〉 군 부	61
〈표 10〉 만경대혁명학원출신자	63
〈표 11〉 김일성대학출신자	65
〈표 12〉 소련·동구유학출신자	68
〈표 13〉 연령별 분포도	71
〈표 14〉 출신지역별 분포	75
〈표 15〉 군엘리트의 김정일 수행횟수	102
〈표 16〉 권력엘리트의 개인적 및 정책적 성격.....	129
〈표 17〉 김정일 연설 대행자.....	132

第 I 章 序 論

1. 研究目的

북한은 모든 권력이 수령 1인에게 집중된 대표적인 전체주의국가이다. 북한도 형식상 입법·사법·행정으로 3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적 권력은 수령 1인에게 집중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북한의 수령은 ‘인민의 최고뇌수’로서 전지전능한 무오류의 ‘神格化’된 인간으로서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료 및 인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사를 포기한 채 수령의 명령에만 절대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적 특성이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계라고 해서 모든 국사를 1인이 기획·조정·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정신적 지위일 뿐 실제적인 정책집행은 제반분야의 ‘일군(관료 내지는 권력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된다. 즉 북한도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각종 인적·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분야의 권력엘리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령을 보좌하는 제반분야의 권력엘리트들은 수령교시의 충실한 집행자이긴 하지만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권력엘리트들의 역할은 수령의 의사를 알기 쉽게 인민들에게 전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의사를 수렴, 수령

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적실성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령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권력엘리트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천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북한에는 혁명 1세대의 대표자였고 절대권의 상징이었던 수령 김일성이 사망하고 혁명 2세대이자 수령 후계자인 김정일이 최고통치권자로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이후 제반분야에서 수령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김정일은 후계자 피택 이후 수령 김일성의 권위를 후계자 김정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매진한 결과, 안정된 후계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후계체제를 지지하는 권력엘리트들의 등용, 강제기구의 강화, 대인민 상징조작 등을 통해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김일성 사망이라는 급변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절대자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공식지위 승계지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큰 동요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북한체제는 김일성수령체제에 버금가는 안정된 김정일 ‘영도자’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현재의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서열 및 위상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권력엘리트들이 향후 등장할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

층적 분석이 북한체제 변화전망과 관련, 중요한 연구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어떤 총원원칙에 의해 등용되었는가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의 소유자인가를 분석한 후, 개별 권력엘리트들의 개인적·정책적 성향을 구명해 보려 한다.

2. 研究方法 및 論点

권력엘리트에 대한 개념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권력엘리트를 “정치권력을 소유하면서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¹⁾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결정(북한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소수집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수령 1인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에서는 수령 1인만이 권력엘리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도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정리, 수령이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단의 인적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

1) 권력엘리트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양성철, 「북한정치연구」(서울: 박영사, 1993), pp. 75~97 참조.

다. 아울러 비록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역할을 하지만 당우위체제하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²⁾에 소속된 당, 정무원, 군의 주요 권력엘리트들은 미미하지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이에 대해 책임도 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권력엘리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델이 있다. 첫째는 양자의 관계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바, 이것을 독립모델이라고 한다.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도 없으며 직업, 교육, 가족배경, 연령, 성별 등이 엘리트가 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첫째와는 반대로 사회적 특권층이 권력엘리트를 독점한다는 입장이다. 이 모델은 권력소유층은 권력, 부, 위신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독점하고 있는 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³⁾

양모델 중 실제 정치세계를 유효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델은 접합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라스웰(H. Lasswell)의 주장대로 권력엘리트가 한 사회에서 귀중히 여기는 가치를 독점한 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 생활공간의 지배계층출신들이 권력엘리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⁴⁾ 다

2) 당중앙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당규약 제23조 참조.

3) 韓培浩, 「比較政治論」(서울: 法文社, 1980), p. 167.

4) Robert D. Putnam,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만 체제와 이념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체적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권력소유층은 자본가일 것이지만 북한의 그것은 노동자, 농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의 소유자가 권력엘리트로 충원되어 왔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고 귀속주의적인 엘리트 충원방법에 의해 권력엘리트를 교체하여 왔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실태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엘리트가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소유자 중에서 충원되기 때문에 사회 내에는 당연히 기반소유자와 불소유자로 양분되어 있다는, 즉 어느 사회나 정치적 계층화현상은 보편화되어 있다는 논리적 주장을 담고 있는 엘리트 접근법(elite approach)을 사용하려 한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연구와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권력엘리트 충원원칙은 무엇인가? 둘째, 어떤 사회경제적 속성의 소유자가 권력엘리트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권력엘리트의 개인적 및 정책적 성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김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6), pp. 22~23.

정일 정권하 권력엘리트 분석의 중요변수로서 김정일과의 친·인척관계,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등을 설정하고, 가장 최근의 북한 권력엘리트 서열인 「김일성장의위원회」위원 273명 중 오진우 등 사망자를 제외한 상위 서열 10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100위까지 선정한 이유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정치국 정·후보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원회위원, 중앙인민위원회위원, 정무원 총리 및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상설회의 위원 등이 포함된 100명 정도가 주요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엘리트 100위까지의 서열은 <附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위는 당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위원, 13~20위는 당정치국 후보위원, 22~27위는 정치국 위원이 아닌 당비서국 비서, 28~32위는 정무원 부총리, 그 이하는 당·정무원 부장 및 인민군장령, 사회단체장 등의 순으로 매겨져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북한 권력엘리트 인적 자료는 국내에서 출판된 각종 북한인명집, 북한 권력엘리트 관련 서적, 귀순자 증언 등에서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판단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第 II 章 北韓 權力엘리트 充員原則의 變遷

1. 社會主義圈의 權力엘리트 充員原則: 舊蘇聯·中國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의 권력엘리트 충원이 지니는 특성은 각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사회주의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국가형성기에는 정치적 충성심과 혁명적 이념을 강조하는 당성이 권력엘리트 충원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되지만 체제형성기의 난관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체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면 체제관리와 경영이 주요과제로 등장하며 권력엘리트 충원에 있어서도 당성보다 전문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⁵⁾

가. 구소련의 권력엘리트 충원

구소련과 같이 성숙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산업화와 사회적 영역의 분화에 따른 정치사회의 관리라는 사회체제의 필연적 요구로 인하여 전문가유형의 관료직을 대량으로 충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들 기능적 엘리트들이 비교적

5) William A. Welsh,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 in Carl Beck, ed.,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1973), p. 42.

순조롭게 권력엘리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스탈린 사후 구소련 권력엘리트 충원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⁶⁾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엘리트 충원방법에 있어서는 각각 약간의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최고권력층에 의한 일방적 임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구소련을 포함해 단일정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에서는 권력자에 의한 임명이 권력엘리트 충원에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며 구소련에서는 호선방법이 주로 채택되었다.⁷⁾ 구소련이 채택한 호선이란 선임권자들이 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택하는 충원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의해 미리 권력엘리트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노멘클라투라라는 예비명부를 작성해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력엘리트의 선정과정은 이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당 위계질서의 각 수준에 있는 선임 당간부들이 선택, 영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충원된 권력엘리트는 당연히 조직 내에서 기존 권력엘리트에 의해 조정 통제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구소련의 충원조건은 첫째, 소련공산당원 내지는 콤포스몰회원이어야 하고, 둘째, 전문성

6) 위의 책.

7) 安澤源, 「新蘇聯政治論」(서울: 博英社, 1987), p. 115.

을 갖추어야 한다.⁸⁾

한편 구소련에서는 혁명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전환되면서 권력엘리트들의 충원조건이 이념성이나 당성으로부터 전문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충성은 엘리트충원을 위한 중요변수가 되지 못했다.⁹⁾

나. 중국의 권력엘리트 충원

중국에 있어서 권력엘리트는 정치적 영역 전반에 걸친 열성분자 중에서 충원된다. 이 열성분자들은 당·정부조직에 참여하여 정치적 능력이 인정되면 권력엘리트로 충원된다. 대체로 각 분야의 열성분자의 경우 인민해방군, 공청단 등을 거쳐 간부등용의 길이 열린다. 특히 50년대 초 당세확장시기에 있어서는 군부와 공청단이 충원의 공급원으로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중국은 1949년 건국후 간부임용 기준으로 德과 함께 이

8) 위의 책, pp. 139~40.

9) 자세한 내용은 George W. Breslauer, "From Brezhnev to Gorbachev: Ends and Means of Soviet Leadership Selection," in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Winchester, Mass.: Unwin Hyman, 1989) 참조.

10) James R. Townsend,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 Co., 1974), pp. 251~55.

념성인 ‘紅’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체제강화기에 대중동원능력, 정치적 의식화, 상급명령의 신속적 적용능력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조된 권력엘리트의 덕목이었다. 그러나 체제가 안정되어 가자 모택동은 간부의 기준으로 재덕검비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당노선의 집행자, 당교육의 준봉자, 대중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자, 독립공작의 능력이 있는 자, 적극성과 자기희생 정신이 풍부한 자 등이 그들이다. 특히 재능과 ‘專’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鄧小平시대에 들어 체제 발전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교육수준, 주기적인 전문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하기 시작한 덕목이다.¹¹⁾ 鄧小平은 간부선발 기준으로 첫째, 사회주의 신봉자, 둘째, 재능과 학식 보유자, 셋째, 전문적 지식 소유자 등을 들었다.¹²⁾

이처럼 중국에서는 권력엘리트가 ‘德과 才’, ‘紅과 專’을 겸비하도록 강조되었으나 급속한 국가건설 정책으로 인해 2가지를 겸비한 인물이 등장하기는 불가능하였고¹³⁾ 국가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라 ‘紅’과 ‘專’의 부침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에서와 같이 중국에서도 개인에 대한 충성심

11) 위의 책, pp. 244~45.

12)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黨中央委 幹部會議 演說, 1980.1.6),” 柳世熙 編, 「오늘의 中國大陸」(서울: 한길사, 1984), p. 179에서 재인용.

13) 吳明鎬, “中國 政治엘리트의 循環과 充員,” 「中蘇研究」, 제10권 제1호 (1986 봄), p. 92.

이 공개적인 권력엘리트 충원요건은 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은 권력엘리트를 충원함에 있어서 선거방식과 일정한 자격 및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식을 충원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방식은 형식일 뿐 위로부터 제시된 후보자리스트에 대한 신임투표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시험이나 검증에 따라 선발, 임용되어야 할 행정, 기술직 간부의 충원도 실제로는 상급조직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된 임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임명제는 중국정치 특색인 파벌간의 이해를 반영하기 마련이고 각종 비리와 정실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비능률과 침체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北韓 權力엘리트의 充員原則 變遷過程

가. 공산주의이념 중심의 통일전선

해방후 북한에는 국내 및 해외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파벌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들은 당과 정권기관의 권력엘리트를 형성, 북한 공산화에 주력하였다. 건국 당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일반적 특징은 조국해방을 위해 일제와 투쟁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단결을 통한 조국건설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념과 반일투쟁 경력을 보유한 자들은 용이하게 권력엘리트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¹⁴⁾ 반대로 일제시 지주나 관료, 군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한편 북한에 유입된 각종 파벌들은 당 및 국가기구의 체계모니 장악을 위해 단기간 내에 자파세력의 확충을 최대당면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당내에는 치열한 파벌투쟁과 자리다툼이 전개되었다. 각 파벌의 지지자 증대경쟁은 파벌주의에 입각, 친분관계나 친인척관계를 당관료 임명 기준으로 채택토록 하였고¹⁵⁾ 그 부작용으로 당성이나 능력보다는 파벌에 따라 자리가 안배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지주, 하급관료, 인테리 등이 권력엘리트에서

14) 김일성은 "...지식수준은 좀 어리다 하더라도 사상이 견실하고 우리와 한 혁명대오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 한 담화, 1945.9.2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72.

15) 김일성은 이에 대해 "...우리당의 일부지도일군들이 가지고 있는 큰 결함의 하나는 간부사업의 원칙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 친인척관계에 따라 인재를 선발배치하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하였다.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각급 단체장들의 사업에 대하여(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5.12.17)," 「김일성저작집 1」, p. 484.

배제됨으로써 국가관리 경험자들의 절대부족사태가 발생하였다. 즉 건국 당시 북한에는 투쟁경험자들은 많았으나 실무 행정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절대부족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국가건설 인력확보 방안으로 과도기적으로는 ‘통일전선’을 통한 구엘리트 확보정책을, 장기적으로는 대학설립을 통한 신엘리트, 즉 민족간부 양성정책을 채택하였다. 1946년부터 오늘날 북한 권력엘리트의 가장 중요한 학맥이 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종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설립된 학교 중 김정일 권력기반이 된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은 1947년 김정숙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상위 권력엘리트로 진출을 위한 교육적 배경이 되고 있다.¹⁶⁾ 물론 대학이나 각종 간

16) 김일성은 “...혁명가유자녀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열렬한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혁명가가 되려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적들과 견결히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이 학교의 설립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만경대혁명유가족학원 교직

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였다. 그 요건은 첫째, 현직간부나 노동자, 빈·고농출신, 둘째, 투철한 반제민족주의사상 보유자 등이었다.¹⁷⁾

한편 김일성이 시도한 통일전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빨치산의 수적 열세를 감안, 권력장악시까지 타파별과 전술적 제휴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실질적 차원에서 학력과 경험 소유의 국가발전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일전선전술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김일성은 당

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48.12.11),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507.

- 17) 김일성은 전문학교와 대학생의 자격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근로인민의 자녀여야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며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북조선인민위원회 제40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6.20),”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29. 아울러 김일성은 중앙당고급지도간부학교 학생자격으로 첫째, 현직간부, 둘째, 노동자, 셋째, 빈·고농을 들었고,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사상적 준비, 즉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 교육, 둘째, 일제와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조선에 대한 만행교육, 셋째, 자신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해야 함을 강조, 넷째, 종파주의, 지방할거주의, 개인영웅주의, 출세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미투쟁교육, 다섯째, 인민적 사업작풍 보유, 즉 관료주의 해독성 강조, 여섯째, 교원들의 역할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민족간부는 새조선 건설의 기둥이다(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7.1),”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83~92.

의 중요성과 함께 각 파벌간의 협조를 강조하였다.¹⁸⁾ 그 결과 <표 1>에서처럼 갑산파(김일성파)를 비롯한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 등 다양한 세력들이 당중앙위에 등용되었고 이러한 원칙은 1956년 3차당대회까지 지속되었다.

물론 이 당시 국가체제의 미비로 인해 간부등용원칙이 정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전선식 충원을 위한 기본 원칙은 있었다. 김일성은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그가 당에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의 능력이다. 지식만 있고 충실치 않은 사람은 필요치 않다”고 말함으로써

18) 김일성은 중앙당학교졸업생들의 임무로서 첫째,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며 이론과 실천을 옹기 결부시킬 줄 아는 일꾼, 둘째, 인민대중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학생과 충복, 셋째, 인민대중과 상론하고 인민대중을 포용할 줄 아는 아량있는 정치가, 넷째, 다른 민주주의정당들과 서로 연합, 단결할 줄 아는 자, 다섯째,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며 당규율을 지키는 일에 모범생 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중앙당학교 제 1회 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6.8.5),” 「김일성저작집 2」, pp. 331~33. 또한 김일성은 중앙당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첫째,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하고 파벌을 지양, 통일전선을 형성, 다른 사람들과 융화심 강조, 둘째, 반동분자들과의 강력한 투쟁하는 투쟁심 강조, 셋째, 조직자, 선전자가 되어야 함. 김일성,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당일군이 되자(중앙당학교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 1947.6.7),” 「김일성저작집 3」, pp. 298~303.

〈표 1〉 노동당 중앙위원 파벌구성

()는 %

과 별	1차당대회 (1946.8.28)	제2차당대회 (1948.3.27)	제3차당대회 (1956.4.23)	제4차당대회 (1961.9.11)
갑산파 (김일성파)	3(7.2)	7(10.4)	11(15.5)	35(41.2)
연안파	13(30.9)	13(19.4)	14(19.7)	2(2.3)
국내파	10(23.8)	21(31.3)	23(32.4)	19(22.4)
소련파	10(23.8)	14(20.9)	11(15.5)	2(3.5)
무소속	6(14.3)	12(18.0)	12(16.9)	5(5.9)
신진		0	0	21(24.7)
합계	42(100)	67(100)	71(100)	85(100)

출처: 康仁德 編, 「北韓政治論」(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380을 중심으로 재구성.

충원기준이 당에 대한 충실성임을 분명히 했다.

어떻든 김일성이 권력엘리트의 조건으로 첫째, 선진이론을 소유하고, 둘째, 충실한 맑스-레닌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넷째, 국가정치생활의 열성적 참가자여야 한다¹⁹⁾는 것 등을 제시한 것은 당시 각 파벌 내에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한 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의 동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념성을

19) 김일성,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9.12.28),”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49.

권력엘리트 충원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최소한 1956년 8월중과사건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나. 당성 중심의 일파적 충원

1950년대 북한 권력엘리트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문제는 2가지였다.

첫째는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문제였다. 한국전쟁은 김일성과 소수 권력엘리트의 결정에 의해 비밀리에 자행되었으나 책임은 여타파벌에 전가되었다. 책임의 첫대상은 무정을 비롯한 연안파에 돌려졌고 그 후에는 남로당파였다. 무정은 연안파 거두로서 김일성의 강력한 政敵이었다. 아울러 남로당파의 박헌영도 국내파 공산주의자로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²⁰⁾ 따라서 이들 兩巨頭는 김일성의 권력장악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김일성은 한국전쟁 패배를 이들 제거의 계기로 활용하였다.²¹⁾

20) 박헌영에 대해서는 김남식·심지연 편, 「박헌영노선비판」(서울: 두리, 1986) 참조. 박헌영과 김일성의 깊은 관계는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206~76 참조.

21)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108~19.

둘째는 전후복구사업과 이를 위한 발전노선의 채택문제였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와 이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발전노선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일단 전후복구를 위한 비상조치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전후복구의 우선순위 논쟁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노선대립을 시작하였다. 즉 농업발전 우선의 중국식과 중공업발전 우선의 소련식이 대립되기 시작하였다.²²⁾ 특히 연안파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개혁파들은 친소련계인²³⁾ 김일성 축출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곧 1956년 ‘8월종파사건’이었다.

물론 김일성은 반대파들의 정치적 저항을 제어하고 이것을 역으로 권력강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사상적 측면에서

22) 김일성은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쏘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노선갈등이 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 일군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7.

23) 김일성은 소련식 발전노선을 선호하였다. 김일성은 일부 새로운 간부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르는 것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나라들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8.5),”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57.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²⁴⁾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전선」에 입각한 권력엘리트의 다원화는 권력에 직접적 도전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후부터 김일성은 권력엘리트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하게 충원의 제1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는 한편 당조직 강화에 매진하였다.²⁵⁾

한편 김일성은 그동안의 간부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²⁶⁾ 간부사업방법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다. 첫째, 간부들을 요해할 때 문건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실지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사람들

2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 일군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p. 467.

25) 조직강화과정에 대해서는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 123~25 참조.

26) 김일성은 “적지않은 당기관들에서 새간부들을 등용하는 것은 좋으나 간부들을 심중히 연구하지 않고 등용하며 배치한 후에도 로동자출신이니 좋다하여 아무 교양도 주지않고 그저 내버려두는 비원칙적인 간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부선발에서 사상적, 정치적 표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실무면만 고려한 결과 혁명사업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로 간부대렬이 꾸려졌으며 결국 당과 국가사업에 무책임하며 군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부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부사업 실패를 토로하였다.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4.1),” 「김일성저작집 9」, p. 277.

을 환상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즉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간부들을 친척·친우관계를 보고 평가하거나 배치하는 현상은 없애야 한다는 점, 넷째, 당핵심육성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점, 즉 당성이 강한자를 선발하고 종파는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²⁷⁾ 김일성은 파벌척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이후 파벌타파는 간부등용 및 사후관리의 최우선 기조가 되었다. 따라서 종파사건 이후부터는 빨치산 일색의 권력 엘리트 충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김일성이 특정지역에 대한 경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함경도 제일주의에 대한 경계가 그것이다. 김일성은 “지난기간 함경도사람들이 간부로 많이 등용되었는데 그것은 간부사업을 당적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군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아무개가 어떤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를 등용배치하는 식으로 간부사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²⁸⁾라고 말하여 함경도인들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 이유는 ‘8월종파사건’ 연루자들

27)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22~23..

28) 위의 책, p. 418.

중 최창익 등 상당수가 함경도 출신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함경도 경계태도는 김정일 시대에까지 지속되었다.²⁹⁾

결국 1950년대는 권력엘리트에게서 파벌에 따른 연고주의 보다는 당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지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다. 당성·전문성 겸비원칙의 충성심 강조

1960년대 권력엘리트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치산파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1956년부터 시작된 종파청산의 결과였다. 따라서 1960년대는 타 파벌과의 투쟁보다는 빨치산파간의 투쟁이 정치적 등용과 탈락을 결정지었다.

한편 김일성은 단일화된 정파를 토대로 경제발전 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하였다. 청산리농법과 대안의사업체계가 발전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북한의 간부정책은 2중적이었다. 첫째는 경제발전계획 완성에 필요한 경제전문가

29) 김정일,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11.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89.

의 양성이었고, 둘째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이념정치전문가의 필요성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1960년대의 일관된 간부등용원칙은 당성과 전문성의 겸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60년대에 등용된 이종옥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고 김일성을 비롯한 군부정권의 기능적 요건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쳤다.³⁰⁾

1960년대는 북한에 있어서 고도성장기였다.³¹⁾ 「중공업우선 농업·경공업병진정책」에 입각, 야심찬 제1차7개년(1961~1967) 계획을 수립하여 전노동력을 경제발전으로 동원하였다. 따라서 인민동원의 전위대인 당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당원수는 1961년 8월 1일 현재 당원 131만 1,563명이었고 정당원은 116만 6,359명, 후보당원은 14만 5,204명이었고 이것은 1959년³²⁾에 비해 14만 6,618명이 증가한 것이었다.³³⁾

30) 박용수, “북한체제 변화의 연구: 북한정치체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동원,”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서울: 자유아카데미, 1978), p. 201.

31)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 121.

32) 김일성은 1959년 현재 당원이 100만 명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2.26),”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36.

3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

이 시기에는 경제발전을 선도할 간부들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혁명1세대와 혁명2세대의 균배를 당간부등용원칙으로 상정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이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종파를 효율적으로 척결한 후 개최된 1961년 당4차대회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빨치산파들의 축제장이었고 따라서 당내기반을 공고히 한 김일성은 충성과 이외의 빨치산에 대한 혁명2세대로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시도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³⁴⁾에서 혁명2세대들에게 정치적 자극과 그에 따른 지위 보장을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1960년대는 김일성대학 출신과 해외유

고(1961.9. 11),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64.

34) 김일성은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나머지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는 “물론 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그 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일정한 수의 기술자전문가를 빨리 키워 민족간부의 대렬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시인하였다.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 총회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17.

학파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였고 김일성은 이들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포섭함으로써 정치적 지위의 공고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김일성은 1961년 4차 당대회시 “지금 당, 정권기관들에서 로동자출신간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3차 당대회 때의 24%로부터 31%로 높아졌으며 오랜 혁명간부들과 로동계급출신 간부들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부문의 간부대렬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핵심당원들로 꾸러졌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여 당정책집행을 옹계 조직할줄 아는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자라났습니다”³⁵⁾라고 만족을 표시하고 간부등용원칙을 “혁명간부와 로동계급출신간부들을 핵심으로 해방후 근로자들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젊은 간부들을 등용할 것”³⁶⁾을 강조하여 간부의 연경화를 시사하였다. 물론 연경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혁명1세대나 구인테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1967년 이전까지의 간부 주축은 출신성분면에서 노동계급출신에 두어 졌고³⁷⁾ 간부가 갖추어야 할 이념은 당성,

3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 11),” p. 266.

36) 위의 책, p. 265.

계급성, 인민성에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다.³⁸⁾ 그러나 김일성은 1967년의 이효순·박금철 사건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간부의 표징으로 혁명적 절개를 유지한 자를 더욱 선호하는 한편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매진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회경제적 배경소유자를 간부자격보유자로 분류하였다.

그 부류는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당,

37) 김일성은 “간부진영을 꾸리는데는 로동계급출신과 인테리간부를 배합하여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출신간부가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금속과학공업성 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1.3),” 「김일성저작집 19」, p. 20.

38) 위의 글 제목 참조.

39) 김일성은 간부표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당은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한 사람, 다시말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지키면서 일편단심 당의 부름을 받들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간부가 될 수 있는 표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징은 계급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몸바쳐싸울 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규정한 간부표징에 맞는 대상은 조국해방전쟁 때英勇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군사간부들의 아들딸들이며 지난날 지주, 자본가들의 모진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 로동자, 고농, 빈농 출신들입니다. 간부들을 등용하는데서 계급적 토대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정권기관 일군들과 군사간부들의 자녀들, 즉 혁명가유자녀들을 들었다. 물론 그 이유는 혁명가유자녀들이 부모의 ‘원췌

본인의 성분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래동안 로동하였거나 지난날 고농, 빈농으로서 직접 착취를 받아본 사람은 지주, 자본가계급을 때려 부시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정신이 강합니다. 본인이 착취를 직접 받아본 사람, 로동속에서 오래 단련된 사람, 다시말하여 본인이 고생을 많이 겪어서 어려운것을 알고 그리운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간부로 선발하는데서 귀중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생을 겪어 보지 못한 동무들은 곤난앞에서 건디는 힘도 약하고 어려울 때에 가서 동요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방후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토지개혁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였고 일제와 매관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빼앗는 산업국유화에도 참가하였고 오늘까지 혁명투쟁에 몸바친 사람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잘 싸운 사람들, 인민군대에 오래 복무한 사람들을 간부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 오래 동안 복무한 사람들은 로동생활을 한것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영예군인들을 귀중한 간부선발대상으로 보고 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동무들을 뽑아서 당일군으로 많이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시기와 그 후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지난날의 로동자, 고농, 빈농의 아들딸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로동과정에서 단련되었거나 착취를 받아본 사람들, 세대군인들과 영예군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동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서 간부로 등용배치하는 것을 간부사업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정책을 옹계 관철할데 대하여(도당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03~04.

들'에 대한 적개심이 크기 때문이었다.

둘째, 일제시 지주, 자본가들의 모진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 노동자, 고농, 빈농 출신들을 들었다. 이들은 계급적 토대는 없지만 자신들이 직접 오랫동안 노동하였거나 지난날 고농, 빈농으로서 직접 착취를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주, 자본가계급을 때려 부수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정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인이 착취를 직접 받아본 사람, 노동 속에서 오래 단련된 사람, 다시 말하여 본인이 고생을 많이 겪어서 어려운 것을 알고 그리운 것을 아는 사람들을 들었다. 고생을 겪어 본 사람들은 곤란 앞에서도 능히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해방후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토지개혁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자, 일제와 매관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빼앗는 산업국유화에 참가한 후 오늘까지 혁명투쟁에 몸바친 사람들과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잘 싸운 사람들, 인민군대에 오래 복무한 사람들을 들었다. 김일성은 인민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들을 노동생활을 한 것과 같이 간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특히 영예군인(상이군인)들을 귀중한 간부선발 대상으로 보고 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사람들을 선발, 당일군으로 많이 쓰도록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해방후 사회

주의 건설에의 적극적 참여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한국전쟁으로 부상한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심해 이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포용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예군인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어느 부류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김일성은 조직적인 간부등용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물론 1969년에 발생한 김창봉·허봉학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였다. 김일성은 1969년 “우리는 40여년 동안 간고한 혁명투쟁을 해오면서 단 한번도 당조직규율을 위반하고 사람들을 현장에서 철직시키거나 간부문제를 비조직적으로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군별관료주의자들은 당의 높은 권위를 악용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아무런 조직적절차도 밟지 않고 간부들을 마음대로 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이 공포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런자들에게 아첨하고 맹종맹동하게 되었습니다”⁴⁰⁾라고 비판함으로써 군별관료주의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軍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⁴¹⁾, 허봉학·김창봉과 함께 김광협·최광·이영호·

40)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9.3.3),” 「김일성저작집 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74.

41) 김일성은 군당위원회 과업을 강조하는 한편, 각 군부대에 당간

석산 등 빨치산 세대를 철직시켰다. 이것은 빨치산세대도 김일성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숙청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다.

한편 김일성은 교조주의적이고 무분별한 간부사업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즉 김일성은 권력엘리트의 계급 평준화가 달성된 상태에서는 각 개인의 충성심과 당성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⁴²⁾

부를 증파할 것을 명령했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209.

- 42) 김일성은 “간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마다 지나온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다 다른것만큼 매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것입니다...우리는 간부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계급적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서로 다른것만큼 개별적으로 충분히 알아본 기초우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간부사업에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주로 보아야 하며 친척관계에서는 실제적인 영향관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간부사업에서 친우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동무들은 일군들을 료해할 때 누구는 아무개와 친척이 되고 친우관계가 있다, 또 아무개가 아버지의 친구였다고 하는 뜬소문이나 문건에 나타난 자료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정책을 옹계 관철할데 대하여(도당 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pp. 308~10.

어떻든 무분별하고 출신성분 중심의 간부요해사업으로 인해 간부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특히 과거 성분이 우월하지 못한 간부들의 위축과 반발이 컸다. 따라서 김일성은 과오를 범한 간부들에 대한 포용정책까지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⁴³⁾ 구인테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밖에 없었다.⁴⁴⁾ 그리고 김일성은 숙련된 간부들을 조그마한 과오를 이유로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부처벌은 반드시 해당기관의 비준

43) 김일성은 “철직당한 사람들을 분석하여 보면 여러차례 비판을 받았거나 책벌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한번 과오를 범하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지금 우리 일꾼들이 범하고 있는 과오들은 대부분이 정치적 과오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화해다거나 탐오행위를 한 것들인데 교양만 잘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11.15~17),”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45~46.

44) 김일성은 구인테리들에 대해 “오랜 인테리들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성분보다 현재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사업에서 기본표징을 보며 계급선을 똑똑히 갈라놓으면서 혁명의 편에 서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려는 오랜 인테리들도 믿어주고 같이 손잡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구인테리들의 효용가치를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데 대하여(도당 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p. 307.

을 받도록 강조하고 있다.⁴⁵⁾ 이후 북한은 <표 2>에서처럼 정치적 탈락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수립, 현재까지도 운용하고 있다.

<표 2> 정치적 탈락 경험자

당서열	성명	시기	사유
2	강성산	1974~1977	김성애 관련 보고 미흡
3	이종옥	1968~1972	대안의 사업체계 비판
5	김영주	1975~1993	김정일과의 권력투쟁
8	최광	1969~1977	김창봉·허봉학사건 목인
13	김철만	1984~1990	미상
19	연형묵	1992.12	정치국후보위원으로 강등
25	김중린	1975~1976 1983~1985	문세광사건 아웅산테러사건
28	김환	1991~1992	시장경제도입 건의
43	오극렬	1988	인민군 당조직 약화 건의
70	이근모	1988~1992	과감한 개혁 주장
140	김달현	1993~현재	군수용전기 전용 건의

계: 11명

45) 김일성은 “간부를 처벌하거나 철직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 간부를 임명한 해당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를 들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비준대상간부나 비서국비준대상간부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정치위원회나 비서국회의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9.3.3),” p. 475.

한편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충성문제와 관련, 사후 비판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이 1968년에 혁명적 절개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몸바쳐싸울 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⁴⁶⁾라고 말한 점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권력 엘리트 층원의 제1요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권력승계는 ‘좋은 가문 출신’인 김정일에게로 되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김일성은 간부표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당은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한 사람, 다시말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지키면서 일편단심 당의 부름을 받들고 곳곳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간부가 될 수 있는 표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징은 계급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몸바쳐싸울 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데 대하여(도당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p. 303.

라. 충성심 중심의 세대교체

197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김정일로 수령후계자가 결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후계자 결정 이후 북한의 모든 정책결정은 후계구도 정착에로 집중되었다. 권력엘리트 충원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력엘리트는 제4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황장엽, 김기남 등 후계체제의 열성적 지지자들 중에서 충원되었다. 김일성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일반적 원칙을 천명하였다. 즉 김일성은 간부문제와 관련, 2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당성 중심의 당성과 전문성의 배합이고, 둘째는 간부의 조건으로 노동자 및 고농·빈농과 같은 기본계급출신을 주장하였다.⁴⁷⁾

이러한 원칙하에서 1970년 제5차 당대회시부터 당·정·군 전기관에 김일성과와 기술관료출신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권력상층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제5차 당대회시

47) 김일성은 “간부선발사업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표징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실무적 표징을 옹계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결된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고농, 빈농과 같은 기본출신들을 간부로 선발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39.

당정치위원회 정위원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서철, 한익수 등 빨치산출신 일색이었고 후보위원 5명은 현무광, 정주택, 양형섭, 김만금, 이근모 등으로서 양형섭, 이근모 등의 전문가가 상위에 등용되었다.

이후 세대교체 움직임은 「사로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로청 간부의 노령화로 인해 참신한 맛이 없음을 지적하고 젊은 세대로의 교체를 주장하였다.⁴⁸⁾ 김일성의 사로청을 통한 세대교체 교시는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음해인 1973년 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조직 및 선전 비서」에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당분야의 실권자가 되었고 1974년 당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김정일의 등장은 김정일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이 간부들의 주요한 덕목이 되도록 하였고 ‘로쇠’ 간부들의 교체를 결과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김정일의 ‘로쇠’에 대한 개념규정이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즉

48) 김일성은 “나이많은 사람들이 사로청조직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로청이 청년들의 동맹다운 맛이 없으며 마치〈평감동맹〉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사로청간부들을 젊은 청년들로 바꾸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10.23~26),” 「김일성저작집 2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04.

충성심이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혁명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연령상의 젊음이 아니라 혁명사상의 소유와 이의 실천을 위한 정력적 활동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청년 후계자 등장으로 인한 노간부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충성을 유도하는 간부정책원칙을 수립하였다.⁴⁹⁾

1970년대 간부들의 덕목으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제시되었다⁵⁰⁾는 점일 것이다.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해 등장한 이 원칙은

49) 김정일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를 먹었다고 하여 로쇠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늙어도 정신적으로 패기가 있으면 결코 로쇠한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비록 나이를 먹었다고 하여도 결코 로쇠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지 않아도 사상이 확고하지 못하면 로쇠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혁명대렬에서 도태되고합니다. 당일군들을 꼭 20대나 30대의 젊은 사람들로 꾸려야 생기발랄한 당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63.

50)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107~18.

김일성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김정일로의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무조건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즉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당원 및 주민들도 철저히 암송하고 준수해야 할 ‘10계명’이었다. 특히 간부들에게는 김일성의 절대성을 신봉하고 인민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김정일은 10대원칙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소위 ‘사상전’을 선포하는 한편, 사상투쟁은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열찬 비판’이 되도록 하였다.⁵¹⁾ 결국 「10대원칙」은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등용원칙일 뿐만 아니라 임용 후의 기본덕목이 되고 있다.

김정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심은 우리간부들의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김일성주의정수분자로 될수 없고 우리 당의 간부로 될수 없습니다...우리는 간부사업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표징으로 보고 계급적토대와 가정주위환경은 그와 밀접히 결부하여 긍부정을 정반비례로 보고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⁵²⁾라

51) 위의 책, pp. 121~23.

52)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고 말하여 계급적 토대나 가정환경보다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북한 권력엘리트 내에 지주출신이 있다⁵³⁾는 점에서 계급적 토대보다는 충성심이 절대적 기준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당조직들이 간부들에 대해 “현미경적으로 깊이 료해파악”하도록 하고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옹개 배합”하도록 하였다. 그는 간부 임명의 공정성을 위해 당중앙위에서 ‘간부임면 비준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충원자체에 대한 강조는 물론 재교육을 강조하고 이의 실천방법으로 ‘총화’제도를 강화하였고,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제도’를 신설하였다.⁵⁴⁾

한편 1970년대에는 소위 ‘속도전’식 간부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임무를 “일군들이 기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며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

185~86.

53) 대표자는 이종옥, 계웅태 등이다.

54)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pp. 187~89.

해야”⁵⁵⁾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과 기풍들은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김정일의 간부임면기준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충성심 중심의 간부등용정책은 1980년대 들어 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간부정책은 제6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김일성의 연설내용 중에 집약되어 있다. 김일성은 간부의 표징으로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1요건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도 강조하였다. 즉 김일성은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⁵⁶⁾라고 강조함과 함께, 이러한 기준은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⁵⁷⁾

55)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아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7.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68.

5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77.

57) 김일성은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의 성분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합니다. 해방후 35년이 지나는데 동안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었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지난날의 계급적 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

아울러 간부사업에 대해서 김일성은 첫째, 간부대열의 간부와 전문간부들의 적절한 배합, 둘째, 간부대열구성에서 노동계급출신의 비율증대, 셋째, 주체교육을 받은 새로 자라난 일군들의 대담한 신간부 기용, 넷째, 오랫동안 노동 속에서 단련된 노동자들, 특히 기관공업공장부문 공업기업소의 핵심 노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할 것, 다섯째, 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개선강화를 통해 정치실무적 능력이 뛰어난 간부의 양산 등을 강조하였다.⁵⁸⁾ 그 결과 1980년 6차 당대회시 비서국에는 김영남, 김환, 연형묵, 윤기복, 황장엽 등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권력엘리트들은 노·중·청 3합구조를 이루는 형식이 되었다.

1980년 간부사업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서 간과할 수 없

나라 오늘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날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책, pp. 381~82.

- 58) 김일성은 “간부대열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며 간부대열구성에서 로동계급출신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지난 기간 당에 충실하여온 로간부들이 계속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새로 자라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래동안 로동속에서 단련된 로동자들 특히 기관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책, p. 377.

는 점은 역시 전문관료들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물론 간부들의 기본조건은 1965년과 비교했을 때 혁명성, 즉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추가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⁵⁹⁾ 이었고 노동계급출신들의 비율증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전문관료들, 특히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들의 등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1980년대는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하는 시점으로서 어차피 혁명2세대들이 권력엘리트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김정일의 인사정책을 ‘수령교시’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1980년 이후 김정일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는 바, 특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비서국에 충성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관료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⁶⁰⁾

둘째, 1980년대는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사실상 후계구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당내에는 더 이상의 파벌 내지는 정

59) 김일성,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3.13),”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47~63. 이러한 기준은 1965년에 비해 혁명성이 강조되어 간부들은 지속적인 혁명노력을 해야 했으므로 지위보존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60)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附錄> 참조.

〈표 3〉 비서국 비서 등장현황⁶⁰⁾

1980.10	1988.11	1989.9	1990.5	1992.12	1993.12	1995.9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계응태
김중린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전병호
김영남	허 담	황장엽	김용순	전병호	전병호	한성룡
김 환	연형묵	전병호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최태복
연형묵	전병호	한성룡	전병호	최태복	최태복	김중린
윤기복	박남기	박남기	박남기	김용순	김용순	서관히
현무광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김기남	김기남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김중린	황장엽	김국태	김국태	김기남
박수동	김중린	허 담	윤기복	김중린	김중린	김국태
허정숙	허정숙	허정숙	김중린	윤기복	서관히	김용순
	서관히	서관히	서관히	서관히	황장엽	
				황장엽		
				박남기		
11명	12명	12명	12명	14명	12명	11명

출처: 「조선중앙년감」, 1981~1994년도 분.

책이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문가 집단의 과감한 등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80년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가 누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고 농업, 경공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발전에 매진해야 할 시점으로 전문가집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도 현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⁶¹⁾ 기술자와

61) 김정일은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현대과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는 수많은 경제관련 권력엘리트들이 명멸해간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경제발전에 기울인 심혈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⁶²⁾ 아울러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전문관료들의 등장과 함께 당정치국에 현역군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1980년 당 제6차 대회시에는 정치국위원의 과반수가 군인이었는데 1989년 말에는 14명의 정치국위원중 두 명밖에 없었다.⁶³⁾ 그 두 명은 오진우, 서철이었다. 현재는 최광만이 유일한 군인신분의 정치국위원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시작된 1990년대의 간부정책은 1980년대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1990년부터는 당비서국 비서들이 <표 3>에서처럼 혁명 2세대 일색으로 등용되었

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전국 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7.2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 183.

62) 자세한 내용은 1980~1990년대 현재까지 「조선중앙년감」 참조.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근모, 이종옥, 연형묵, 강성산 등이다.

63) 고병철, "북한의 정치변화,"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10.

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전문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충성심 우위의 원칙은 지속되었다. 즉 김정일은 사회계급적 토대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혁명성만 강하면 주체의 동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⁴⁾

한편 김정일은 세대교체로 인해 혁명성과 당성이 부족한 관료들의 등장을 시인하고⁶⁵⁾ 세도와 관료주의의 척결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관료들의 자질문제는 체제의 사활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물론 사회주의권 붕괴의 한 원인을 인민과 당을 유리시키는 세도와 관료주의의 등장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다.⁶⁶⁾

64) 김정일은 “사회계급적토대가 나쁜 사람도 혁명적영향을 받으면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진보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토대를 따지지 않고 그를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5.5),”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0.

65) 김정일은 “우리는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우는 문제를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책, p. 78.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도덕성이 북한관료들이 갖 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3. 小 結

북한 권력엘리트 충원에 관한 사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북한체제의 특징과 그와 관련한 권력엘리트 충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이 절대화된 수령중심체제이다. 북한의 수령은 왕조시대의 왕권이나 전제군주시대의 군주의 권한을 능가하는 절대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근간으로 수령은 인민의 정신적, 육체적 행위양식을 지배·통제한다. 주체사상으로 정교화된 수령론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시 하고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만이 미덕임을 강조하고 있다.⁶⁷⁾ 북한에서는 충성심과 효성심이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군대의 제1덕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료 임용조건도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한편 수령중심체제와 관련하여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은

66) 위의 책, pp. 77~81.

67) 수령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성, “수령체계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12) 참조.

수령이 자연인 김일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김일성은 빨치산의 ‘두령’이었고 ‘두령’을 ‘수령’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김일성은 수령화에 대한 다양한 반대를 강력한 리더쉽으로 제압하고 수령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을 제외한다면 수령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수령제 결과로 신격화된 수령 김일성과 육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은 ‘신성가족(Holy Family)’으로 간주되고 모든 분야에서 우대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왕조적 세습체제이다. 김일성은 계속혁명론을 도입,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장자인 김정일로 권력을 이양하였다. 세습제 도입으로 인해 모든 이념·정책·관료임면 등은 일원적 관계인 수령 김일성과 후계자 김정일의 공통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수령과 후계자는 일체관계로 정립되었고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계자 김정일의 이념·정책·임면에 관한 통치행위는 곧 김일성의 통치행위로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정일 승계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러한 인물들은 권력엘리트로 신분상승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김정일 승계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체제구축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로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주체사상, 대내외 정책, 관료기구 및 인

원은 모두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일체적 관계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분절적이 아닌 연속적 속성을 띠면서 작동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빨치산출신들이 건립한 유격대국가이다.⁶⁸⁾ 현재의 북한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빨치산출신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봉사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김일성 1인전제왕국의 도구라는 비난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북한역사에서 빨치산들은 건국공신들이었다. 빨치산들은 내부갈등과 파벌싸움을 지속하면서도 위기 시에는 통합된 형태로 그것을 타개함으로써 현재의 북한체제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빨치산출신들은 개국공신으로 추대되었고 현재까지 상위 권력엘리트군을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력엘리트 충원원칙은 이념성→당성→당성·전문성→충성심 등으로 변천되어 왔고, 이러한 원칙은 김정일이 ‘유훈통치’를 표방하는 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은 ‘충성심우선, 당성·전문성차선’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성격이 세습정권이고 이것이 ‘先王’의 통치이념, 원칙을 답습하

68) 와다하루끼는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만주파가 당중앙위원회를 독점함으로써 유격대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다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p. 311~16.

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http://www.kci.go.kr](#)

第Ⅲ章 金正日 權力엘리트의 社會經濟的 背景 分析

1. 黨·政·軍 權力엘리트에 대한 概觀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크게 당·정·군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들은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 보위를 위해 각 분야에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당엘리트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구도 및 정책 방향 수립 역할을 한다. 즉 당엘리트는 국가목표의 전반적 지도를 작성, 인민을 목표달성으로 끌고 가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서⁶⁹⁾ 중앙집권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조선노동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물론 조선노동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김일성의 私黨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체제 전체가 김일성의 지도이념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⁷⁰⁾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체사상은 노동당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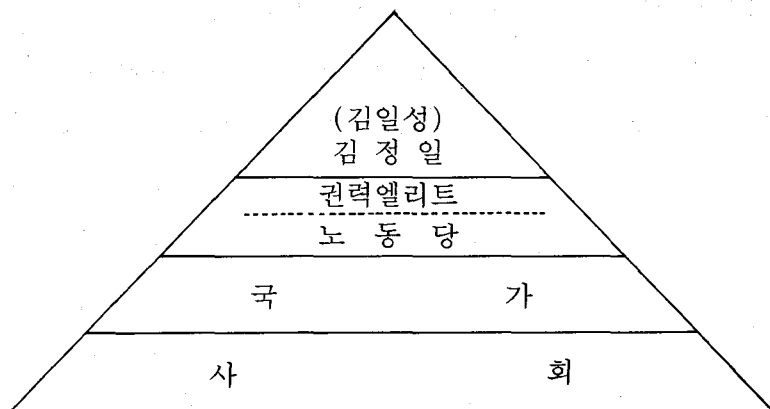
69) 전용헌, “북한의 정치체제,” 이은호·김영재, 「북한의 정치와 사회」(서울: 서울프레스, 1994), p. 206.

70) 북한헌법 제3조 참조.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 사상과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⁷¹⁾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김일성주의를 의미한다.

북한 권력구조는 외형상 최고인민회의, 중앙재판소, 정무원으로 구조적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기능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예속기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헌법상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주석, 정무원총리, 중앙인민위원회의 서기장 및 위원, 중앙재판소장 등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⁷²⁾ 실제로는 노동당이 사전 내정한 인물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고, 정당제도 또한 천도교 청우당을 허용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용하고 있

〈표 4〉 북한 사회구조



71) 1980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前文 참조.

72) 북한헌법 제76조 참조.

으나 당조직면에서 청우당원은 노동당원이 겸직함으로써 타 정당의 존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당독재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표 4> 처럼 김일성-노동당-국가-사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의 국가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일성·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국가체제하에서 당관료들은 북한사회의 실질적 작동요원들로서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인적자원들이고 따라서 당관료들은 어떤 분야의 관료들보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관 및 자긍심이 뚜렷하다.

둘째, 정부엘리트는 당이 작성한 지도를 판독하고 목표를 성취해 내는 실무담당자들이다. 정부엘리트는 주로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바, 각 위원회·부·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 지도,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집행대책 수립,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사회질서 유지 및 국가이익 보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⁷³⁾ 정무원 조직은 총리 1명, 부총리 10명, 15개 위원회, 21개 부, 1개 원, 2개 총국, 1개

73) 북한헌법 제126조 참조.

국,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⁴⁾

정무원에 소속된 권력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담당하는 전문가집단들로서 충성심, 당성,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들이다.

셋째, 군엘리트는 국방과 사회안전을 보장하고 당정책 관철을 무장력을 통해 옹호하고 있는 당혁명무력의 근간이다.⁷⁵⁾⁷⁶⁾ 북한인민군은 수령의 군대이고 당의 군대이며 인민의 군대이다. 북한군이 수령의 군대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군이 정통성의 기반을 항일빨치산에 두고 있는 바, 항일빨치산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빨치산들은 북한 정권수립 초기의 정치적 혼란기에 김일성 정권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정권수립 이후 당·정·군의 요직에 계속 등용되고 있다.

빨치산의 후예를 자부하고 있는 군엘리트는 ‘위대한 수령’

74) 「조선중앙년감(1994)」, p. 73. 이 「년감」은 인민무력부를 정무원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75) 당규약 제46조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76) 이하 모든 표는 원칙적으로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1995)」(서울: 서울신문사, 1995)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령은 한국식 연령계산법에 의한 것임.

김일성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수령의 군대로서 세습체제 유지와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의 첨병역할을 한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최고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표 15>에서처럼 인민군부대 방문과 군관련행사에 대한 참여를 계속함으로써 군부 우선정책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2. 權力엘리트의 社會經濟的 背景 分析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표 5>에서처럼 당·정·군·의회에 중첩적으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당·정·군으로의 분류방법이 아닌 일률적 방법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김정일 친·인척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신성가족’들이 권력상층부에 대거 등용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개인기업화된 북한은 가산제적 전통이 답습되고 있다.⁷⁷⁾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77) 북한을 가산제로 보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가산제에 대한 설명은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춘 편,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pp. 359~90 참조.

〈표 5〉 당-정-군 겸직관계

당서열	성 명	당 직책	정부 직책	군 직책	기 타
1	김정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비서		국방위원장, 원수, 최고사령관	대의원
2	강성산	정치국위원	총리		대의원
3	이종욱	정치국위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		대의원
4	박성철	정치국위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		대의원, 「조국전선」의장
5	김영주	정치국위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		대의원
6	김병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		사회민주당 위원장
7	김영남	정치국위원	부총리, 외교부장		대의원
8	최 광	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원		국방위부위원장, 총참모장,치수	대의원
9	계응태	정치국위원, 비서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10	전병호	정치국위원, 비서		국방위원	대의원
11	한성룡	정치국위원, 비서, 부장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12	서윤석	정치국위원, 평남도 책임비서	중앙인민위원		대의원
13	김철만	정치국후보위원		국방위원, 대장	대의원

당서열	성명	당직책	정부직책	군직책	기타
14	최태복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 부장			대의원
15	최영립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 금속공업부장		대의원
16	홍성남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		대의원
17	양형섭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18	홍석형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계획위원장		대의원
19	연형묵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당책임비서	중앙인민위원		대의원
20	이선실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한민전」 부위원장
21	김철수		국가안전보위 부장(?)	상장	
22	김기남	당중앙위원, 비서, 부장			대의원
23	김국태	당중앙위원, 비서, 부장			대의원, 김일성고급당 학교장
24	황장엽	당중앙위원, 비서, 부장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25	김중린	당중앙위원, 비서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장

당서열	성 명	당 직책	정부 직책	군 직책	기 타
26	서관희	당중앙위원, 비서			대의원
27	김용순	당중앙위원, 비서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조평통」부위원장, 「아·태평화」 위원장
28	김 환	당중앙위원	부총리, 화학공업부장		대의원
29	김복신	당중앙위원	부총리, 경공업위원장		대의원
30	김창주	당중앙위원	부총리		대의원
31	김윤희	당중앙위원	부총리		대의원
32	장 철	당중앙위원	부총리, 문화예술부장		대의원, 조선 공연협회회장
33	공진태	당중앙위원	부총리, 인민봉사위원장		대의원
34	윤기복	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원장		대의원
35	박남기	당중앙위원	평양시 행정경제 위원장		대의원
36	전문섭	당중앙위원	국가검열 위원장	대 장	대의원
37	유미영				대의원, 천도교 청우당위원장
38	현준극	당중앙위원회, 부장			대의원, 「로동신문」주 필, 「기자동맹」위원 장

당서열	성명	당직책	정부직책	군직책	기타
39	원동구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40	이하일	당중앙위원, 중앙군사위원, 부장		국방위원, 대장	대의원
41	김익현	당중앙위원, 중앙군사위원, 부장		차수	
42	이창선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로동당출판사 부사장 겸 주필
43	오극열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44	권희경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45	김경희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46	장석송	당중앙위원			대의원 당역사연구소장
47	채희정	당중앙위원, 부장			대의원
48	노명근	당중앙위원, 부장			
49	전하철	당중앙위원			대의원
50	김두남	당중앙위원, 중앙군사위원		대장	대의원
51	백학림	당중앙위원, 중앙군사위원	사회안전부장	차수	대의원
52	지창익	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 서기장		대의원
53	이용무	당중앙위원	교통위원장		대의원
54	이지찬	당중앙위원	전력공업위원장		대의원

출처 :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1995)」(서울: 서울신문사, 1995)을 중심으로 구성. *55위 이하는 연구편의상 생략함.

고 김정일에 의해 <표 6>에서처럼 12명이 서열 100위 내에 등용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출신성분을 중요시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김일성은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고주의 등용사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그 자신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였다. 친·인척 등용 이유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출신성분의 우수성 때문일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것은 향후 권력구조의 경직성, 공조적의 무

<표 6> 김정일 친인·척

당서열	성명	연령	관계	비고
1	김정일	54	본인	김일성의 아들
4	박성철	83	4촌고모부	김일성의 4촌매부
5	김영주	74	숙부	김일성의 동생
17	양형섭	71	4촌고모부	김일성의 고종사촌 매부
24	황장엽	73	4촌매부	김일성의 조카사위
27	김용순	62	외삼촌(?)	김정숙의 동생(?)
30	김창주	74	숙부	김일성의 4촌동생
45	김경희	50	매	김일성의 장녀
53	이용무		사돈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64	강현수	71	외삼촌	김일성의 외종제
80	장성우		사돈	김경희 남편 장성택의 형
98	김성애		계모	김일성의 후처

계: 12명

용화, 비친인척들의 반발 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나. 빨치산 세대 및 빨치산 2세, 군부

유격대국가인 북한에서 빨치산들이 득세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빨치산은 국가수립단계, 한국전쟁, 전후복구, 김일성유일지배체제 확립, 후계체제 수립과정에서 항상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체제

〈표 7〉 빨치산 세대

당서열	성명	연령	직책
3	이종욱	80	부주석
4	박성철	83	부주석
8	최광	78	인민군총참모장
13	김철만	78	제2경제위원장
36	전문섭	76	국가검열위원장
41	김익현	?	당민방위부장
51	백학림	78	사회안전부장
53	이용무	73	정무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61	황순희	77	조선혁명박물관장
73	이을설	76	호위총국장
74	김광진	69	국방위원회 위원
84	조명록	72	공군사령관
97	최성숙	82	농근맹위원장

계: 13명

에서 최고의 사회경제적 배경 소유자가 되고 아울러 최상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김정일도 명절때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들을 국가원로로 대우하고 있다. 빨치산세대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명이나 등용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자연수명이 다함으로써 김일성, 오진우처럼 자연사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들은 자연사하기 직전까지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사후에는 혁명열사능에 안치되는 영광을 누린다.

아울러 북한 권력엘리트 특징 중 하나는 <표 8>에서처럼 빨치산의 직계후손인 2세들의 등용이 많다는 점이다. 즉 상위 100명 중 10명이나 등용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직계후손

<표 8> 빨치산 2세

당서열	성명	연령	관계	직책
1	김정일	54	김일성의 장자	인민군 최고사령관
2	강성산	65	강위련(?)의 자	정무원 총리
11	한성룡	73	한홍권(?)의 자	당비서
12	서윤석	68	?	평남도당 책임비서
14	최태복	67	?	당비서
23	김국태	72	김책의 장남	당간부부장
28	김 환	66	김혁의 아들	부총리, 정무원화학공업부장
43	오극렬	68	오중흡의 아들	당작전부장
72	임수만	?	임춘추의 아들	개성시 인민위원장
96	최용해	52	최현의 아들	사로청 위원장

계: 10명

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 외국에 대한 투쟁심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사회주의대가정론'에 입각, 국가유공자에 대한 '육친적 배려'가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체제가 존속하는 한 당성과 충성심이 높은 빨치산 2세들의 권력엘리트 진입율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빨치산 전통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빨치산세대와 함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치산의 후예인 군장성을 31명씩이나 100위권 이내의 권력엘리트에 대거 포진시키고 있는 점은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군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부는 1969년 허봉학·김창봉 사건 이후 철저한 견제를 당해 왔으나 김일성은 견제와 함께 군엘리트의 위상제고를 통한 유화책을 병행하였다. 군의 당내 위상제고를 통한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는 당-군관계를 원활히 하고 이것은 군의 당에 대한 불만을 극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당-군복합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출신학교

북한에서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종합대학·해외유학을 거

〈표 9〉 군 부

당서열	성 명	계 급	직 책
1	김정일	원 수	군최고사령관
8	최 광	차 수	군총참모장
13	김철만	대 장	국방위원회 위원
21	김철수	상 장	미상
36	전문섭	대 장	국가검열위원장
40	이하일	대 장	당군사부장
41	김익현	차 수	당민방위부장
50	김두남	대 장	당군사위원
51	백학림	차 수	사회안전부장
73	이을설	차 수	호위총국장
74	김광진	차 수	인민무력부 부부장
75	김정각	상 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76	오용방	대 장	당군사위원
77	김명국	대 장	당군사위원
78	원응희	대 장	당중앙위원
79	김격식	상 장	당중앙위원
80	장성우	대 장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81	전진수	상 장	당중앙위원
82	주상성	상 장	당중앙위원
83	김영춘	대 장	당중앙위원
84	조명록	대 장	공군사령관
85	김일철	대 장	해군사령관
86	김용운	상 장	당중앙위원
87	강동윤	상 장	당중앙위원
88	박기서	대 장	당중앙위원
89	한인술	상 장	당중앙위원
90	김하규	상 장	당중앙위원

〈표 9〉 군 부(계속)

당서열	성명	계급	직책
91	남상락	상장	당중앙위원
92	현철해	상장	후방총국장
93	이봉원	대장	총정치국 부국장
94	김병률	상장	당중앙위원

계: 31명

치는 것은 상위 권력엘리트로의 등용문이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혁명유자녀들이 항일운동을 했던 부모들의 유업을 이어 받아 반제투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해주·남포혁명유자녀학원을 설립하였다.⁷⁸⁾ 김일성은 만경대출신은 군부엘리트로, 해주·남포출신은 정치엘리트로 육성시키려 하였다.⁷⁹⁾ 현재 만경대혁명학원으로

78) 김일성은 만경대혁명학원생들에게 “우리는 원수가 있는 한 혁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미일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바랍니다. 동무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잊지 말고 인민군대를 비롯하여 당 및 정권기관, 경제기관과 근로단체들에서 골간이 되고 핵심이 되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혁명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창립스무돛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23.

〈표 10〉 만경대혁명학원출신자

당서열	성명	연령	직책
1	김정일	54	국방위원장, 인민군최고사령관
2	강성산	65	정무원 총리
10	전병호	70	당 군수공업정책검열부장
11	한성룡	73	당 경제정책검열부장
12	서윤석	68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14	최태복	66	당과학교육부장
19	연형묵	65	자강도당 인민위원장
23	김국태	72	당 간부부장
28	김 환	66	부총리, 정무원 화학공업부장
38	현준극	71	당국제부장
43	오극렬	68	당작전부장
50	김두남	69	당중앙군사위 위원
58	이철봉	61	정무원 도시경영부장
67	최문선	66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68	임형구	73	강원도 인민위원장
70	현철규	?	함경남도 인민위원장
71	이길송	73	양강도 인민위원장
74	김광진	69	인민무력부 부부장
76	오용방	66	당중앙군사위 위원
84	조명록	72	공군사령관
85	김일철	68	해군사령관
93	이봉원	71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부국장
94	김병률	70	당 중앙위원
96	최용해	52	「사로청」 위원장

계: 25명

개명된 이 학교는 김정일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2세들이 졸업하였고 김정일 정권의 제1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이 학원은 군대식 교육과 1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명 중 25명이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이다.

한편 김일성은 민족간부 양성을 위해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였다. 오늘날 김일성대학은 권력엘리트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코스로서 정착되었고 <표 11>에서 보듯이 권력서열 100위 이내에 ‘金大’출신들이 김정일을 비롯해 34명이나 등용되어 있다. 김일성대학 입학자격은 우수한 성적은 물론 사상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뛰어난 자들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출신자들은 자긍심이 높고 특히 학교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김일성대학 출신자들의 상층 권력엘리트로의 과다대표는 非‘김대’출신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79) 김일성은 혁명학원을 졸업한 유자녀들을 “당기관이나 사로청, 직맹, 농근맹, 녀맹과 같은 근로단체들에 배치하고 전망성있게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혁명학원에 대한 그의 복안은 “만경대혁명학원은 군사간부로 키우고 해주나 남포혁명학원은 당정치일군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혁명가로 키우자(해주, 남포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8.9.5),” 「김일성저작집 22」, p. 394.

〈표 11〉 김일성대학출신자

당서열	성명	연령	직책
1	김정일	54	국방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2	강성산	65	총리
7	김영남	71	외교부장
10	전병호	70	당군수공업정책검열부장
11	한성룡	73	당경제정책검열부장
12	서윤석	68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14	최태복	67	당과학교육부장
15	최영림	67	정무원 금속공업부장
16	홍성남	72	부총리
17	양형섭	71	최고인민회의의장
19	연형묵	65	자강도당 인민위원장
22	김기남	70	당선전선동부장
23	김국태	72	당간부부장
24	황장엽	73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27	김용순	62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28	김 환	66	부총리, 정무원 화학공업부장
30	김창주	74	부총리
42	이창선	71	당사회문화부장
43	오극렬	68	당작전부장
45	김경희	50	당경공업부장
46	강석송	73	당역사연구소장
47	채희정	72	당계획재정부장
59	정준기	72	대외문화연락위원장
62	정하철	?	중앙방송위원장
64	강현수	71	평양시 인민위원장
66	김학봉	70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표 11〉 김일성대학출신자(계속)

당서열	성명	연령	직책
67	최문선	66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68	임형구	73	강원도 인민위원장
69	이근모	70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72	임수만	?	개성시 인민위원장
93	이봉원	71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부국장
94	김병률	70	당중앙위원
96	최용해	52	「사로청」 위원장
100	이몽호	76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계: 34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붕괴로 해외유학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 ‘김대’출신들의 등용비율과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유학파들에 대한 김일성의 공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⁸⁰⁾ 〈표 12〉에서 나타난 바대로 해외유학파들이 47명이나 상층 권력서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김일성은 고졸직후 유학가는 대신 김일성대학 출신자들 중 혁명성이 높은 자들을 선발, 유학시키도록 함으

80) 김일성은 유학출신자들에 대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였다. 김일성,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홍남공업대학, 함흥의과대학교직원들과 한 담화, 1953.10.18,” 「김일성저작집 8」, pp. 87~88.

로써⁸¹⁾, 직접유학의 폐해를 극소화시키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로 유학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주체공화국’ 북한이 해외유학과를 선호하는 것은 역설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제한적이거나 개방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가 빈번해질 것이고 김정일 정권하에서 해외유학출신자들의 등용기회는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외경험과 정보가 많은 이들은 향후 김정일시대에 개방정책의 적극적 지지는 물론 충실한 실천자가 될 것이다. 물론 상위 권력엘리트들의 유학지가 구소련·동구로 한정됨과 함께 시기도 스탈린주의가 팽배하였던 1940~50년대에 편중됨에 따라 당분간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면적 포기나 수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라. 연 령

북한은 <표 13>에서처럼 원로중심의 등용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70~80대의 노년이 100위 이내 권력엘리트들 중 50명

81) 김일성은 “쓸데없이 유학을 많이 보내서는 안되고 국내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일정한 사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나라 연구원에 보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책.

〈표 12〉 소련·동구유학출신자

당서열	성명	소속
2	강성산	체코 프라하공대
3	이종옥	하르빈공대
4	박성철	일본 상지대
5	김영주	모스크바대
6	김병식	일본 동북대
7	김영남	모스크바대
8	최광	만주대성중
9	계응태	소련고급당학교
10	전병호	모스크바대
14	최태복	동독 라이프치히대
15	최영립	모스크바대
16	홍성남	체코 프라하공대
17	양형섭	모스크바대
19	연형묵	체코 프라하공대
22	김기남	모스크바국제대
23	김국태	모스크바대
24	황장엽	모스크바대
25	김종린	소련고급당학교
26	서관희	모스크바대
27	김용순	모스크바대
28	김환	동독 칼 맑스 공대
30	김창주	모스크바대
31	김윤혁	소련 레닌그라드공대

당서열	성명	소속
32	장철	일본 명치대
33	공진태	일본대학
34	윤기복	모스크바대
35	박남기	소련 레닌그라드공대
36	전문섭	소련프른제군사대학
38	현준극	모스크바대
39	원동구	모스크바대
43	오극렬	소련공군대
45	김경희	모스크바대
47	채희정	모스크바대
50	김두남	소련 군사아카데미
57	박용석	소련 철도대
59	정준기	모스크바대
67	최문선	모스크바대
68	임형구	모스크바대
69	이근모	소련 레닌그라드공대
70	현철규	체코 프라하기계부문전문학교
71	이길송	소련 레닌그라드공대
73	이을설	소련 군사아카데미
74	김광진	소련군 포병기술학교
84	조명록	소련 유학
85	김일철	소련 해군대
93	이봉원	모스크바대
94	김병률	체코 프라하공대
99	백인준	일본 유학
100	이몽호	모스크바대

계: 48명

을 장악한 반면, 50~60대가 19명 정도밖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 현재까지는 체제안정을 위해 빨치산출신의 노장들을 포용하는 등 원로정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 둘째, 북한에서는 상위 권력엘리트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7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상대적으로 신진세대의 득세와 정책적 영향력이 적체 내지는 봉쇄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한편 상위 권력엘리트 100위 내에 50대부터 80대까지의 연령층이 함께 등용되어 있다는 것은 정권안정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노·중·청 3합구조가 채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30~40대가 100위권 이내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정·군의 주요부서에서 실무일꾼으로서 노년의 무기력을 보완해 주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대폭적인 세대교체 없이 이러한 원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연령별 분포도

연 대	당서열	성 명	연 령
80대(소계: 6명)	3	이종옥	80
	4	박성철	82
	20	이선실	80
	37	유미영	82
	61	신상균	84
	98	최성숙	82
70대	5	김영주	74
	6	김병식	77
	7	김영남	71
	8	최 광	78
	9	계응태	71
	10	전병호	70
	11	한성룡	73
	13	김철만	78
	16	홍성남	72
	17	양형섭	71
	22	김기남	70
	23	김국태	72
	24	황장엽	73
	25	김중린	72
	26	서관희	73
	29	김복신	71
	30	김창주	74
31	김윤희	70	

〈계 속〉

연 대	당서열	성 명	연 령
70대(소계: 44명)	32	장 철	70
	33	공진태	71
	34	윤기복	70
	36	전문섭	76
	38	현준극	74
	42	이창선	71
	46	강석승	73
	47	채희정	72
	51	백학림	78
	53	이용무	73
	59	정준기	72
	60	황순희	77
	64	강현수	71
	65	박승일	74
	66	김학봉	70
	67	최문선	70
	68	임형구	73
	69	이근모	70
	71	이길송	73
	73	이을설	76
84	조명록	76	
93	이봉원	71	

〈계 속〉

연 대	당서열	성 명	연 령
	94	김병률	70
	98	김성애	72
	99	백인준	77
	100	이몽호	76
60대(소계: 16명)	2	강성산	65
	12	서윤석	68
	14	최태복	67
	15	최영림	67
	19	연형묵	65
	27	김용순	62
	28	김 환	67
	35	박남기	68
	40	이하일	60
	43	오극렬	68
	44	권희경	68
	50	김두남	69
	58	이철봉	60
	74	김광진	68
	76	오용방	66
	85	김일철	68
50대(소계: 3명)	1	김정일	54
	45	김경희	50
	96	최용해	52

총계: 69명

마. 출신지역

북한에서 출신지역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한때는 함경도출신들이 과다대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함경도지방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항일빨치산운동이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시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성이 유지되었고 이것이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성분상의 강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지방주의 및 파벌형성 배제차원에서 강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 내에는 현저한 지역감정이나 지역파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경도출신 23명과 평안도출신 21명(평양을 포함하면 26명)이 등용되어 그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특정지역이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결정적 조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함경북도 출신들이 16명이나 등용되어 있다는 점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지역적 편중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한지역출신이 상위 권력엘리트 100위 이내에 6명이나 진출해 있다는 것은 북한이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출신성분보다는 혁명성, 즉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권력엘리트 등용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표 14〉 출신지역별 분포

지 역	당서열	성 명	비 고
함경남도 (소계: 7명)	17	양형섭	함주
	38	현준극	단천
	39	원동구	정평
	47	채희정	단천
	71	이길송	
	76	오용방	
	95	주성일	
함경북도 (소계: 16명)	2	강성산	
	3	이종옥	성진
	7	김영남	명천
	8	최 광	
	10	전병호	성산
	11	한성룡	
	19	연형묵	
	23	김국태	
	24	황장엽	길주
	36	전문섭	
	52	지창익	
	66	김학봉	무산
	70	현철규	온성
80	장성우		
89	한인술		
100	이몽호		

〈계 속〉

지역	당서열	성 명	비 고
평안남도 (소계: 12명)	5	김영주	대동
	9	계응태	
	12	서윤석	
	13	김철만	
	26	서관희	
	27	김용순	평원
	31	김윤희	
	33	공진태	
	46	강석승	평원
	59	정준기	안주
	65	박승일	덕천
	98	김성애	
평안북도 (소계: 9명)	25	김중린	벽동
	28	김 환	후창
	29	김복신	
	37	유미영	의주
	50	김두남	
	54	이지찬	
	69	이근모	정주
	93	이봉원	
	99	백인준	운산
황해남도 (소계: 3명)	35	박남기	해주
	67	최문선	은륜
	96	최용해	신천

〈계 속〉

지역	당서열	성 명	비 고
강원도 (소계:2명)	16	홍성남	원산
	22	김기남	
자강도(소계: 1명)	44	권희경	강계
양강도 (소계 4명)	15	최영립	
	40	이하일	
	68	임형구	갑산
	73	이을설	갑산
평양 (소계: 5명)	30	김창주	
	45	김경희	
	64	강현수	
	74	김광진	
	85	김일철	
남포(소계: 1명)	14	최태복	
소련, 중국 (소계: 5명)	1	김정일	소련 하바로프스크
	43	오극렬	만주 길림성
	51	백학림	남만주
	60	황순희	동만주
	84	조명록	만주 연길
남한(소계: 6명)	4	박성철	경북 경주
	6	김병식	전남 신안
	18	홍석형	충북 괴산
	20	이선실	제주
	32	장 철	경북
	42	이창선	전남

총계: 71명

3. 小 結

김정일 정권하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권력엘리트 인적 구성의 변동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빨치산출신, 빨치산 직계 2세, 만경대혁명학원출신·김일성종합대학출신·해외유학경험자, 군출신, 노인 등이 상층 권력엘리트를 장악하는 정치적 관행은 김정일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충성심과 당성 및 전문성을 겸비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교육과 관행에 의해 ‘노멘클라투라’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력엘리트 구조의 특징은 향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인척구조에 대한 불만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非친·인척 권력엘리트에게 내재된 불만이 지위상승문제 내지는 김정일 이후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친인척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의 비합리성은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난관에 대한 책임전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학교 중심의 권력배분은 여타학교출신들의 소외와 이로 인한 갈등발생 여지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출신들에 대한 특혜는 사회경제적

출신성분보다는 당성과 충성심을 중요시한다는 기본적 간부 배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학교출신자들의 지위상승 좌절감은 간부선발의 무원칙성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정권 내지는 체제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당·정·군 중첩구조와 군인사의 과다대표는 관료주의와 부패, 군사비과다지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중첩된 인사들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 저하, 업무영역의 모호성, 회의의 형식주의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⁸²⁾ 따라서 업무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통한 직업주의의 강화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부문간의 영역장악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군인사의 정치화는 사회 전체의 병영화와 군사비과다지출을 낳고 이로 인해 인민경제는 더욱 약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병영국가적 특색인 긴장의 일상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상태의 이완이 발생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지나친 원로중심구조는 권력엘리트 교체의 지연을 낳고 이로 인해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신진세대의 증가는 더욱 많은 지위를 요구하게 되고 지위부족

82) 都興烈, “엘리트 形成과 循環,”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 247.

은 신진세대의 불만과 ‘窓門課長’의 양산을 야기, 조직의 불일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로중심구조는 하의상달의 지연과 대화단절을 야기, 조직의 효율성과 위기관리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第Ⅳ章 金正日 政權의 職能別 權力엘리트 性向 分析

구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촉진요인 중의 하나로 개혁개방적 성향의 권력엘리트 및 대항엘리트의 존재가 주장되고 있다.⁸³⁾ 즉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덩小平, 폴란드의 바웬사 등 실용주의적·개방적 성향의 지도자가 사회주의체제 변화를 촉진시킨 인적요인이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체제의 이념적 성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체제 변화의 주역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상층 권력엘리트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최고 권력엘리트의 중요성은 어떤 다른 체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내 상층 권력엘리트의 성향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과연 북한 내에도 개방지향적 권력엘리트가 존재할 것인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인물은 누구일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성향을

83)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 2.

분석하는 데는 많은 난점이 있다. 첫째,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요인물들에 대한 개인성격이나 연대기적 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권력구조의 특성상 상이한 노선을 보유한 파벌의 존재가 불가능하고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본 장에서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일반적 경력과 개인성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시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이용,⁸⁴⁾ 상위서열 100인 중 비교적 활동이 빈번한 자에 대한 성향을 직능별로 분류, 분석해 보려 한다. 서술된 개인적 배경은 연령, 출신지, 학력, 경력, 김일성·김정일과의 관계, 개인적 특성, 정책적 특성 등이다.

84) 권력엘리트 성향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이항구, 「김정일과 그 참모들」(서울: 신대양사, 1995);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中央日報社, 1995); 유영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統一經濟」, 통권 7, 8, 9호(서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서울신문사, 1995) 등임. 주로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前북한사회안전부 고위관료출신인 김정민씨의 증언을 참조 하였음.

1. 職能別⁸⁵⁾ 權力엘리트 性向 分析

가. 이념 분야

양형섭

함남출신인 양형섭(71)⁸⁶⁾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친·인척인 양형섭은 최고성분의 소유자이다. 그는 김일성의 큰고모 딸인 김신숙의 남편이어서 김일성 친·인척으로 분류된다. 양형섭은 해방 후 공청활동에 참가했으며 공청의 추천을 받아 1947년 김일성대학에 입학하였고 1949년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함으로써 충분한 학맥도 형성하였다. 양형섭은 1953년 귀국 후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지도원, 1961년 10월 노동당 중앙당학교장, 1962년 4월 당중앙위 맑스-레닌주의연구소장을 맡아 이론계의 실세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1967년 내각 고등교육상, 1968년 당선전선동부장,

85) 본 장에서 분류한 권력엘리트들의 직능분류는 현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前職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前職所屬으로 분류하였음.

86) ()안의 숫자는 연령으로서 한국식 연령계산법에 의한 것임.

1970년 당비서겸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4년 당정치국 위원 등 이론선전분야의 책임자로 승진가도를 달렸다. 양형섭은 북한 지식계를 대표하는 이론가로서 논리정연한 설득력과 명강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1급공신이다. 1983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고 1993년 12월에는 당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임되었다.

둘째, 양형섭도 당적지도를 받은 경험자이다. 그는 1980년 7월 사회과학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치위원과 비서에서 물러나 당직에서 멀어졌다. 그 이유는 교육부문에서 김정일 지도체계수립 및 외국어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잘못 집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양형섭의 성격은 남에게 큰 소리 지르는 법이 없을 정도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김정일의 주선으로 평양 미술대학 외국어 교수와 결혼한 그는 김정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섭은 무사안일형 관료이다.

황장엽

함북출신인 황장엽(71)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장엽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정치적 등용을 위한 기본학력을 갖추었다. 1954년 귀

국 후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강좌장을 맡았고 195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 1965년 김일성대학 총장을 역임한 후, 1980년 당비서, 1993년 국제담당 당비서 및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둘째, 황장엽은 양형섭과 함께 주체사상을 체계화한 당대 최고의 이론가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제3세계외교에 주력할 시기인 1972년에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맡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을 순회, 1975년 비동맹가입을 성사시키는 한편, 이 지역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설립, 김일성우상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셋째, 황장엽은 김일성 후계체제 공고화에 매진하였다. 그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김정일 생모 김정숙 우상화작업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황장엽은 매사에 논리가 정연하지만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조직·선동·공안 분야

김영주

평남출신인 김영주(74)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의 실제로서 '신성가족'인 김영주는 한때 철직

당하였으나 현재는 최고 성분을 지니고 있다. 그는 김정일 이전 유력한 김일성의 후계자였다. 1961년 9월 4차당대회 이래 당조직지도부장이던 김영주는 1960년대에 당권을 장악한 권력가였다. 특히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 직후인 제4기 14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때 권력기구가 변하여 당위원장, 부위원장제가 폐지되고 비서국이 설치되면서 김영주는 더욱 부상했다. 왜냐하면 당권이 이미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겸 당비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둘째, 김영주는 김일성 권력강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비록 자신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형태이긴 했지만 김일성에게 반항하는 수많은 빨치산들을 숙청하였다. 후계자 부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과정에서 김영주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정치적 도전과 역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첫 시련은 박금철·이효순의 도전이었다. 박금철은 1967년 3월부터 김영주를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나 5월 전원회의를 통해 숙청당하였다. 또한 1968년 중반부터는 군부지도자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이 김영주에 반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박금철·이효순사건’ 이후 당권이 김영주에게 집중하는데 반발, 김영주의 일제시 附日經歷을 문제 삼아 김영주의 지시인 「당적지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저항했다. 이들은 1969년 1월 노동당인민군위원회 제4기 4차

확대전원회의에서 숙청당하였다.

셋째, 김영주도 철직의 경험을 맛보았다. 신성가족으로서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영주는 김정일과의 대권다툼에서 패배, 장기간의 유배생활에 돌입하였다. 김영주는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정치위원, 비서로 선출되고, 1972년 7월 당조직비서자격으로 남북공동성명에 서명,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2월 정무원 부총리로 임명된 후 해외순방과 외국사절단 접견 등의 활동을 하다 1975년 7월 7.4공동성명발표 3주년 성명발표를 끝으로 정치무대를 떠났다.

김영주가 18년간의 「당적지도」 후에 당정치국위원, 국가부주석으로 재등장한 것은 1993년 12월이었다. 동년 7월부터 공식석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는 김정일과의 화해를 통한 김정일 위상제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응태

함북출신인 계응태(71)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응태는 출신은 부유하였으나 일제시 좌익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북한내 최고위층까지 중용되었다. 만주봉천 대학을 중퇴한 후 1936년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와 연계를 가졌고 귀국 후 길주단청지방에서 좌익지하운동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의 인테리정책에 의해 1948년 소련고급당학교에 유학하였고 1951년 귀국, 당국제부 과장을 시작으로 1957년 국제부부부장, 1960년 외무성 부상, 1962년 내각 무역성 부상, 1967년 내각 무역상, 1976년 정무원 부총리, 1983년 평남도당 책임비서, 1985년 평남행정경제지도위원장, 1986년 당중앙위비서 및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당비서국 사범 및 공안담당비서를 역임하고 있다.

둘째, 계응태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성실함으로써 큰 역경을 겪지 않고 출세하였다. 그는 1970년 당중앙위원, 1977년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80년 당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였다. 계응태는 1986년 이후 김정일의 실무지도 및 현지도도를 근접수행하는 김정일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다.

서윤석

평남출신인 서윤석(68)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윤석도 빨치산 2세로서 북한최고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의 부친은 1930년대 김일성빨치산부대에서 활동하다 1938년에 일경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윤석은 1947년 김일성의 배려로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 엘리트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1953년 제대 후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

부를 거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윤석은 당 조직지도부의 지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59년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1964년 부부장, 1970년 황해남도 당책임비서, 1975년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1976년 평양시당책임비서, 1986년 평남도당 책임비서를 맡았다. 현재 정치국원 중에 유일하게 평남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보직으로 평양 다음으로 중요한 평남의 지방행정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한편 그는 1970년 당중앙위 후보위원, 1980년 당정치국 후보위원, 1982년 정치국위원이 되었다.

둘째, 서윤석은 김정일체제 공고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1967년부터 시작된 유일사상체계 확립과정에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는 중심역할을 하였다. 1967년 5월 ‘박금철·이효순’사건 당시 김도만, 박용국, 고혁 등을 숙청하는데 공을 세웠다. 1969년에는 김일성, 김영주에게 반기를 들었던 군부강경파 김창봉·허봉학 등을 숙청하는 데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가 가동되었던 1973년부터는 조직사상담당 비서였던 김정일 휘하에서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으로 일하며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매진하였다.

또한 서윤석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기를 든 김동규, 유장식을 비롯해 1974~78년간에 수십명의 당, 정, 군계통 간부들을 현직에서 추방하였다. 그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김정일 선

전물인 「주체위업을 빛내시어,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가시는 길에서」 등 이른바 「덕성실기」를 만들어 냈다. 이 덕성실기는 당간부들과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걸림돌이었던 김성애세력을 제거하는 데도 공을 세워 김정일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김기남

강원도 출신인 김기남(7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기남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 유학을 마침으로써 등용을 위한 기본적인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에는 외무성에서 근무하다 1974년 「근로자」지 책임주필을 필두로 1976~1986년까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1976~1986년까지 기자동맹위원장, 1987년 9월 당선전선동부장직을 맡음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하에서 선전의 선봉장역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김기남은 1978년 조직비서였던 김정일의 인정을 받아 김정일 명의의 노작작성과 각종 축하문 작성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우리식대로 살아가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등의 구호를 창안하였다. 김기남은 현재 「로동신문」 주필 현준극과 「민주조선」 책임주필 김정숙

과 함께 김정일체제하 선전선동부문 트로이카이다. 그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고집은 센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국태

함북출신인 김국태(7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국태는 빨치산 원로 김책의 장남으로서 북한 최고의 성분소유자이다. 아울러 그는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졸업이라는 화려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해 김국태는 1968년 당선전선동부장, 1976년 김일성고급당학교장, 1983년 당선전선동부장, 1984년 당교육부장, 1985년 당간부부장, 1992년 당비서등을 거쳤다.

둘째, 김국태는 당선전선동부장 시절 김영주, 김성애 제거에 앞장섰고 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역사연구실로 개편하는 한편, 김정일초상화를 김일성초상화와 동열에 놓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환심을 샀다. 그는 매우 보수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군사 분야

최 광

함북출신인 최광(78)의 사회정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광은 북한 최고성분인 빨치산출신이다. 그는 만주 용정의 대성중학을 중퇴한 뒤 1935년 경부터 김일성의 부하로 활동하였다. 1945년 귀국 후 최광은 보안간부훈련소 연대장, 38경비연대 참모장, 연대장 등을 맡음으로써 초창기 북한 인민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시 13사단장이었고 1952년 강건군관학교장을 역임하였다. 1953년 이후 5군단장, 1집단군 참모장, 1960년 공군사령관, 1962년 민족보위상 부상, 1963년 인민군총참모장을 맡아 명실상부한 군의 실력자가 되었다. 1956년 4월 당중앙위후보위원에 등용된 후 1961년 중앙위원이 되었고, 1966년 10월 당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80년 6차당대회시 정치국후보위원, 1990년 정치국위원이 되었다.

둘째, 최광도 철직을 당한 경험의 소유자이다. 그는 1969년 1월 김창봉·허봉학 사건에 연루, 철직되어 웅진광산 노동자로 좌천되었다. 그 이유는 김창봉·허봉학 등 군부강경파가 김일성·김영주에 반대하는 반당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묵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광산노동자로 전락했

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석탄생산 증대에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자기비판서를 작성 당과 김일성에게 보고함으로써 김일성의 환심을 샀다. 1977년 그는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 됨으로써 재기에 성공하였고 1980년 10월 6차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됨으로써 과거의 직위와 영광을 회복하였다. 1981년 3월부터는 정무원 부총리로 이동하였고 1988년 2월에 인민군 총참모장에 재기용되어 현재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광은 김일성과 오진우 사후 군최고원로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철만

평남출신인 김철만(78)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철만은 김일성 항일빨치산 소년중대 출신으로 최고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1946년 보안간부훈련소 대대장, 1950년 인민군 10사단 연대장을 거쳐 1954년 소련군 사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김철만은 1958년 37사단장, 1964년 민족보위성 작전국장, 1965년 2군사령관, 1968년 인민군부총참모장, 1970년 제1부총참모장, 1979년 당중앙 군사비서 등을 거쳤다. 그는 1970년에 당중앙위원이 됐고 1980년에는 정치국후보위원, 군사위원으로 등용돼 군사간부

로서는 오진우, 최광 다음으로 고위직을 차지하였다.

둘째, 김철만은 김정일체제 공고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군인이면서도 뛰어난 정치감각 소유한 그는 김정일이 당조직지도부장에 취임하자 숲군수공장에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도록 지시했다. 특히 그는 1969년 허봉학·김창봉 등을 제거하는데 앞장섰고, 80년대 초 당에서 김정일 초상화를 내리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해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김철만은 군출신답게 계획한 일은 성취하고 마는 성격이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제2경제를 담당해 옴으로써 제2경제의 대부격이다.

셋째, 김철만도 철직을 당한 유경험자이다. 김철만은 소련에서 현대군사과학을 익힌 동시에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형적인 군인이다. 그러나 그는 1984년을 전후하여 정치국후보위원에서 탈락하는 역경을 겪었다. 물론 김철만은 1990년 5월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재기했다.

이하일

양강도출신 이하일(6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는 군부소장과 중 김정일의 신임도가 매우 높은 장군이다. 이하일은 1987년 당중앙군사부장, 1990년 국방위원회위원, 1992년 당군사위원회위원 등 군관련 주요직책을 모두 보유

하고 있어서 군부실세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하일은 당군사 부장직을 이용, 군엘리트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인민군 대장에 임용된 그는 통이 크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소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익현

김익현(?)은 김일성의 빨치산동지로서 북한최고의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1977년 인민무력부부부장, 1991년 당 중앙군사위원 및 당민방위부장에 등용되었고 1994년에 차수가 되었다.

오극렬

만주출신인 오극렬(68)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극렬은 빨치산 2세로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공군대학을 거친 북한내 최고엘리트이다. 그는 68년 공군사령관을 지냈고, 1976년 8월 발생한 지경수·지병학사건시 이용무, 장정환, 임철 등을 숙청, 김정일후계체제 확립에 결정적인 공을 세워 공군출신이고 중장계급(우리의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1979년 인민군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오극렬은 1989년 당작전부장에 등용되었고 북한공군발전과 군현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오극렬도 철직을 당한 경험의 소유자이다. 그는 군부 개혁, 즉 군부 내에 퍼져 있는 중대정치일꾼 제거 등 군·정조직분리에 관심이 많고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다 1988년 총참모장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인민군통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치위원의 권한축소라는 ‘폭탄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극렬은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워 1989년에 당작전부장에 임명되었고, 김정일이 하사한 216-5555 번호판이 달린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현역은 아니지만 군부의 지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 군부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두남

평북출신인 김두남(69)은 해방전 화학공장 노동자로 근무하였고 해방 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건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군사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그는 1965년 당군사부 책임지도원, 1976년 군사부 부부장, 1980년 군사부장을 거치는 등 주로 당군사부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黨軍人’이다. 김두남은 인민군 전체에 대한 당적지도를 담당하는 당조직지도부 13

과출신으로 김정일의 군인사분야 핵심참모라는 주장도 있다.

백학림

남만주출신인 백학림(78)은 빨치산출신으로서 학벌은 없지만 최고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빨치산세대 중에서도 무학자에 가까워 판단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모순이 많은 결정을 한다고 한다. 백학림은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배경을 이용, 엄청난 부정축재를 했다. 물건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 백학림은 부하들에게 뇌물상납을 강요하고 외국 방문시 당자금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백학림은 1971년부터 치안을 담당하는 사회안전부에 간여하기 시작, 1973년 4월 사회안전부 부부장, 1974년 6월 사회안전부 경비국장, 1985년 사회안전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백학림은 사회안전부장 임무와 정반대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1986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의서를 김정일로부터 비준받았다. 즉 그 제의서의 내용은 “사회안전부에서 외화벌이를 하여 방범기자재 등을 외국에서 사오고 여기서 남는 것을 이용, 사회안전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거간이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금전획득을 위해 골동품, 금, 약초, 수산물 등을 닥치는대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

에 팔았다. 부작용이 심해지자 백학림은 1988년 5월 “거간꾼들이 성행하여 자본주의의 온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부에서 이를 단속하여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김정일에게 상신, 허락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안전원들의 횡포는 더욱 심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승인한 이 제의서는 「5월 14일 방침」으로 명명되고 사회안전부는 사회안전부 정치대학학생들이 주축이 된 「5.14 그룹빠」를 조직, 사회전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를 경직시켰다.

이을설

함남출신인 이을설(76)은 빨치산출신으로서 비교적 군업무에만 충실한 자이다. 1982년부터 호위총국장을 역임해 온 그는 1980년 당중앙군사위원, 1990년 국방위원회 위원, 1992년 차수에 임용되었다. 이을설은 이기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고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 군인들로부터의 지지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평양출신인 김광진(68)은 빨치산출신으로서 만경대혁명학

원과 소련포병기술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북한내 최고의 성분을 소지하고 있다. 김광진은 고지식하여 평탄하게 군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고 꾸준한 승진을 거듭, 1985년 인민무력부 부부장, 1990년 국방위원, 1992년 차수 및 남북군사공동위 북측 위원장에 임용되었다. 김정일은 4.25군병렬식 등 군사관련 행사때 최광이나 김봉률을 제치고 김광진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해 김광진에 대한 신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광진은 1994년 7월 20일 「김일성추도대회」시 군을 대표하여 추도사⁸⁷⁾를 함으로써 김정일의 측근임을 과시하였다.

오용방

함남출신인 오용방(66)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건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980년 당중앙군사위원, 1986년 당중앙위원회에 임명되었고 1987년부터 대장으로서 평양방어사령관을 맡고 있다.

87) 「로동신문」, 1994.7.21.

김명국

김명국(?)은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1989년 당중앙위 후보위원, 1991년 당중앙위원, 1994년 대장 및 인민군작전국장 등에 임명되었다. 그는 작전의 귀재로 알려져 있고 김정일 집무실에 파견된 바 있다. 김명국은 김정일에게 입체전 개념과 인민군 전력강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조명록

만주출신인 조명록(76)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소련에 유학함으로써 지위상승을 위한 기본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1977년부터 공군사령관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연료탱크를 줄이는 대신 폭탄장착능력을 향상시키는 대대적인 전투기 개조사업을 벌인 바 있다. 조명록은 1980년 당중앙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이 되었고 1992년에 대장이 되었다.

김일철

평양출신인 김일철(68)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소련해군대학을 나오으로써 권력엘리트의 기본요건을 구비하였다. 1982년부터 해군사령관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1985년

상장, 1992년 대장에 승진하였다.

이봉원

평북출신인 이봉원(71)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 모스크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함으로써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기본성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당에서 활동하였다. 이봉원은 1970년 개성시당 책임비서를 시작으로 1974년 황남도당책임비서를 역임하였고, 1980년 당중앙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되었다. 1986년에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담당부국장으로 등용된 그는 김정일을 위해 군 내부의 인사·조직을 총괄하는 핵심측근이 되었다. 이봉원은 인민군총정치국장인 오진우 사망 이후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있고 <표 15>에서처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을 가장 많이 수행한 장령이다.

라. 대남 분야

이선실

제주출신인 이선실(8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크게 알려진

〈표 15〉 군엘리트의 김정일 수행횟수

(1995년도)

당서열	성명	횟수	날짜
8	최광	7	1.1, 1.28, 2.25, 3.1, 3.15, 3.17, 4.25
40	이하일	10	2.5, 2.6, 2.25, 3.5, 3.15, 3.17, 4.25, 6.15, 8.6, 9.13
51	백학림	3	2.25, 3.1, 3.15
73	이을설	6	1.28, 2.25, 3.1, 3.5, 3.15, 4.25
74	김광진	7	1.28, 2.25, 3.1, 3.15, 3.17, 4.25, 8.6
84	조명록	4	2.6, 2.25, 3.15, 4.25
85	김일철	4	2.6, 2.25, 3.15, 6.15
90	김하규	8	2.5, 2.6, 3.5, 3.15, 3.17, 6.15, 8.28, 9.13
93	이봉원	12	1.1, 1.28, 2.5, 2.6, 2.25, 3.1, 3.5, 3.15, 3.17, 4.25, 6.15, 8.6

참고: 1. 1-인민군 제214부대 시찰

1.28-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 참가자 접견 군협조단 공연 관람

2. 5-인민군 제291부대 여성해안포병중대 시찰

2. 6-해군 제155부대 시찰

2.25-오진우 빈소 문상

3. 1-오진우 장례식 참석

3. 5-집단체조 「영원히 모시리」 관람

3.15-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

3.17-인민군 협주단 공연관람

4.25-인민군 제1017부대 시찰

6.15-인민군 제853해병부대 시찰

8. 6-「군훈련일군회의」 참가자면담

8.28-「군여성해상훈련」 지도

9.13-인민군 제893부대 시찰

것이 없다. 그녀는 1950년 월북, 주로 대남공작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선실은 66년부터 남파간첩 내지는 남한내 고정간첩으로 활약하였다. 그녀가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진 계기는 1992년 9월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발표하면서였다. 그녀는 대남공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이선실은 1980년 10월 당중앙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되었고 198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중린

평북출신 김중린(7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중린은 일반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거치는 화려한 학벌은 없다. 다만 그는 수재형의 머리와 예리한 정치적 판단력, 뛰어난 문필력, 영어 일어 등의 실력, 날쌔고 재치있는 업무처리 능력 등을 기반으로 김일성의 호감을 샀다. 70년대 이후 대남공작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중린은 1969년 숙청된 허봉학의 뒤를 이어 당중앙위 대남담당 비서로 발탁되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김중린은 김일성 우상화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킨 공로로 지위상승을 이루어냈다. 그는 60년대 일본 조총련을 통

해 <김일성전>이라는 우상화물을 일어, 영어, 불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출판, 일본·프랑스 등 구라파 자본주의국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등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서 창의력을 발휘, 김일성의 측근으로 부상하는 전기를 가졌다. 또한 김중린은 문화부장, 대남비서라는 중책을 이용하여 김일성에게 주변정세나 대남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는 등 열성을 인정받아 김일성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부상하는 능력을 보였다. 한편 김중린은 김정일체제 출범 당시부터 김정일 체제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김정일 우상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는 「향도의 별」이라는 책을 제작·출판, 일본내 판매보급에 열정을 과시하였다.

셋째, 김중린은 대표적인 철직 후 복권자이다. 1969년 대남담당비서 취임 후 그는 124군부대, 283부대 등의 특공대를 특수8군단으로 통합하고 지하당 공작을 주임무로 하던 695부대도 대폭 개편하였다. 또한 김중린은 대남담당비서 예하에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를 두고 인민무력부 정찰국 업무와 조총련 공작사업 등 관련업무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중린은 1974년 8월 문세광 사건, 1975년 10월 남침용땅굴 발견 등으로 인해 문책을 당했다. 물론 그는 1976년 9월 대남공작기구의 하나인 남조선문제연구소⁸⁸⁾ 소장직으로 복귀

88) 남조선연구소는 현재 약 600여 명의 연구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였고 1978년 3월 당중앙정치위원으로 재부상하였으며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대남비서로 재기용되었다.

그러나 김중린은 1983년 10월 아웅산테러의 실패, 1983년 9월 남한의 수재물자 제의 수락 등의 책임을 지고 1984년 다시 당에서 해임되었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다. 김중린은 1985년 1월 정치국 후보위원에서조차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2월에 당비서로 재기용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86년 2월 당비서에서 해임되었으나 1988년 11월 당비서로 재복귀하였다. 1990년 1월 당6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윤기복에게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그는 명실공히 대남관련 최고 전문당료였다.

윤기복

함남출신인 윤기복(7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기복은 경기중학출신으로서 해방 후 「공청」활동수행 중 1948년 모스크바대학에 유학, 통계학을 전공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구인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 북한내 주요 권력엘리트로 활약 중이다.⁸⁹⁾ 한편 윤

89) 김일성은 구인테리에 대한 교조주의적 평가를 경계하였다. 김일성은 “우리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나 지주, 자본가들에게 복무한 인테리들을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기복은 1962년 내각보통교육상, 1967년 내각재정상, 1968년 내각 국가계획위원장, 1971년 당과학교육부장, 1972년 대외 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976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 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72년 남북대화시 자문 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81년 「조평통」 부위원장, 1990년 대남담당비서 등을 거치는 등 경제·교육·대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윤기복도 철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김일성으로부터 다방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0년 6차 당대회시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로 선출되는 등 지위상승을 계속하던 중 1983년 6월 당비서직을, 9월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또한 윤기복은 1991년 복귀한 당비서직을 1993년에 再喪失,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재철직당하였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인테리의 처지는 변하였으며 그들의 성격도 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테리를 덮어 놓고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해방후 오랜 인테리들 중에서 좋은 동무들이 우리당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낫과 마치고 붓으로 새겨진 우리당 마크는 당의 성격을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농민 및 근로인테리와 굳게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평안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10」, pp. 137~38.

마. 외교 분야

박성철

경북출신인 박성철(8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성철은 북한 최고성분인 항일빨치산 출신이다. 그는 만주대성중학 시절 김일(박덕삼), 임춘추 등 동창들과 만나 반일운동을 재개했다. 팔도구광산의 노동자들과 반일투쟁을 하던 중 폭약을 김일성부대에 공급한 인연으로 1936년 초 김일성을 만났고 그후 부하로 함께 항일빨치산운동을 했다.

둘째, 박성철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평양학원 부원장, 보안간부훈련소 부소장, 38경비대 연대장, 1948년 2월 인민군 창설시 인민군사령부 참모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군관련 업무를 보았으나 한국전 이후부터 외교관련업무를 보았다. 그는 1956년 당국제부장, 1959년 외무상, 1970년 내각 제2부수상 등을 역임하였고 1972년에는 헌법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원 부총리가 되었다. 박성철이 활동한 50~60년대는 남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던 시기로 그는 제3세계외교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박성철의 노력의 결과 북한은 1975년 비동맹회의에 가입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박성철은 1976년 정무원총리를 거쳐, 1977년 국가부주석, 1980년 정치국위원에 임명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셋째, 박성철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및 노동당의 유일적 지도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며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현재 박성철의 정치활동도 이종욱과 같이 외교에 국한되고 있다.

김영남

함북출신인 김영남(71)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남은 철도공무원의 자제로 태어났다. 비교적 좋은 성분으로 태어난 그는 해방 후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함으로써 권력엘리트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었다. 1954년 초 전후복구건설기에 북한으로 귀국한 김영남은 당국제부에 배치되었고 이후부터 외교관계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그는 당국제부 1970년 제1부부장, 1972년 부장을 거쳐 1975년 국제담당 비서로 발탁되는 등 최고위 외교책임자로 성장했다. 김영남은 1982년 12월 당에서 정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80년 정치국위원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둘째, 김영남도 김일성권력강화의 전위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김영남이 김일성의 신임을 얻게된 계기는 1956년 연안파를 제거한 8월전원회의였다. 그는 예리한 논리로 연안파

를 공격해 김일성 그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다. 그후 1967년 5월 박금철·이효순 사건 때는 당국제부장 박용국이 박금철을 추종한 사실과 박용국의 개인비리를 폭로해 박금철그룹의 제거에 앞장섰다. 1976년에는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부주석 김동규 숙청에도 앞장섰다. 김영남은 김정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외교를 총괄하는 자리를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당비서들인 김용순과 황장엽을 비롯한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들에게 실무를 이양하고 의례적 외교행사에만 참여하고 있다.

김용순

평남출신인 김용순(6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용순은 김정일의 친인척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 북한내 최고 성분을 갖춘 권력엘리트이다. 그는 60년대 초에는 강원도, 원산 등 지방인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70년대부터는 외교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김용순은 1980년 당중앙위원과 국제부부부장을 역임하였고 1984년 당중앙위 비서가 되었으며 1988년 당국제부장에 등극한 후 1992년 윤기복에 이어 대남담당비서에 발탁되었다. 김용순은 당 내에서 박성철, 허담, 김영남 등을 이어 받을 유능한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김용순의 특징은 북한이 모든 외교를 그에게만 맡기고 있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 9월에는 일본 가네마루 신(新)을 평양으로 초청, 자신의 외교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김일성 추모식 때는 자신의 권력서열을 무시하고 김정일 바로 뒤에 서있었던 것은 물론 울먹이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를 위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였다.

94년에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북측수석대표로 등장, 유연한 자세로 이홍구대표와 회담하였다. 100킬로에 달하는 거구인 김용순은 김정일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대외개방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경제 분야

강성산

함북출신인 강성산(65)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산은 북한에서 가장 우대받는 출신성분인 빨치산의 후예이다. 그의 아버지 강위련은 연변 화룡현 출신으로 김일성부대의 기관총 사수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였다. 자연스런 일이지만 빨치산후예인 강성산은 만경대 혁명가유자녀학원, 최고엘리트 코스인 김일성종합대학, 프라

하공대 유학을 할 수 있었다.

둘째, 강성산은 기술관료답게 정무원의 중책을 맡아 왔다. 1977년 정무원 부총리로 등용된 이후 1984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에서 그는 제1부총리 자격으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무역활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하고 같은 회의에서 총리로 피선되었다. 강성산의 총리 부상과 함께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채택하는 한편,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도 마련하였다. 북한은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인 강성산을 중심으로 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강성산은 개방정책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가 함북도당책임비서로 재직할 당시인 1991년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었고 1992년 12월 연형묵에 이어 총리에 재기용되었다. 그 이유는 곤경에 처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와 개방정책 대안을 보유하고 있는 강성산이 적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1984년 2차7개년계획을 마무리한 뒤 3차7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전의 조정기에 총리직을 맡았고 지금도 경제조정기에 총리직을 맡고 있다.

셋째,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그는 김일성의 정치적 지지자였고 김일성의 정치적 전위대였다. 1956년 연안파, 1959~60년 소련파, 1967년 갑산파, 1969~70년 군부강경파

숙청시 강성산은 김일성의 별동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혁명성이 뛰어난 권력엘리트로 평가받았다.

넷째, 충성심이 강하고 김일성·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웠던 그도 철직경험이 있다. 평양시당책임비서 시절인 1974년 6월 개최된 평양시당 전원회의는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의 동생인 김성갑(당시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의 평양시당 조직비서 시절의 비리가 폭로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강성산은 시당책임비서로서 전원회의를 주도했지만 이들의 비리를 당중앙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강성산은 총리재직시인 1986년 12월 갑자기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비서로 자리를 옮겼고 1년 반정도의 공백기를 지나 1988년 3월 함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에 취임하는 역경도 경험하였다.

이종옥

함북출신인 이종옥(8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종옥은 지주의 아들로서 북한최고의 성분인 김일성빨치산파는 아니지만 해방전 좌익활동을 함으로써 좋은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인테리출신인 그는 일제시 일본대학 전문부를 거쳐 만주 하얼빈공대 공학부를 졸업했다.

둘째, 이종옥은 해방 이후 성진(현 김책시)에서 공산당조

직에 참가했고 성진제강소 지사장, 지배인으로 일했다. 또한 공학도출신인 그는 1950년 초 당중앙위원회 중공업부장이 되었고 김일성의 중공업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종옥은 1950년대 중공업 정책을 둘러싼 당내 갈등시 정일형과 김두삼의 김일성 중공업, 군수공업 치중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당분자로 역비판, 김일성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김일성은 이종옥의 정책성향과 과학기술지식,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 그를 중공업부문 보좌역으로 채용하였다. 그도 경제전문가답게 개방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이종옥 역시 철직당한 경험의 소유자이다. 내각부수상 재직시인 1968년 4월쯤 김일성이 제시한 경제관리 이론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비현실성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 철직당하였다. 함북지방의 광산지배인으로 좌천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후된 광산을 3~4년 만에 일급광산으로 끌어 올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확인되어 1972년 중순 중공업위원장으로 재기용,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후 1976년 정무원부총리, 1977년 총리가 되었고 1984년 국가부주석이 되었다.

전병호

함북출신인 전병호(7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병호는 엘리트코스인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당의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를 거쳤다. 1956년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 1960년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1964년 중앙당학교 강좌장, 1968년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주로 당조직분야에서 활약하였다. 1973년 9월 조직 및 사상담당 비서가 된 김정일은 1974년부터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이던 전병호를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재등용하였다. 조직지도부 출신답게 조직실무도 뛰어나 1976년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자격으로 부장 겸 비서인 김정일을 사실상 대리해온 일급참모이다. 1979년부터 당주석부장으로 이동, 김일성·김정일을 보좌하는 일을 맡다가 1986년에 당비서로 발탁됐다. 그는 1980년 당중앙위원, 1982년 정치국후보위원, 1988년 정치국위원 등에 등용되었다. 현재 전병호는 군수담당 당비서와 당군수정책검열부장,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방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고 김정일의 신임은 확고부동하다.

둘째, 전병호는 김일성 후계체제 확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즉 그는 김정일 유일지도체계 확립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권력핵심에 진입하였다. 김국태, 한성룡과 함께 보수인맥을

형성하면서 김정일 지지기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체제에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급진적 개방에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을 주창한다. 한편 전병호는 당건설 이론분야의 권위자이며 문필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김일성·김정일 명의의 논문이나 담화원고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전병호는 북한경제의 70% 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군수산업, 즉 제2경제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권력엘리트이다. 그가 군수산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2년 제2경제위원장으로 기용되면서부터였다. 1986년 당비서로 자리를 옮겨 제2경제위원회를 통제하는 당내의 최고책임자로 부상했다. 전병호가 1988년 4월 김정일의 강계시 자동차공업부문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것도 군수분야책임자였기 때문이었다. 강계시 일대는 북한의 최대 군수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전병호는 자동차, 공작기계 분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민간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가교역을 맡아 당의 입장, 즉 김정일의 의도를 국방위원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일성 사후 그는 1995년 4월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도에 동행하였다. 전병호는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성룡

함북출신인 한성룡(73)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성룡은 북한최고의 성분인 빨치산가족이다. 부친 한홍권은 김일성빨치산부대의 중대장을 하다 1938년 무산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명가유가족인 한성룡은 1946년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에 입학하였고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 전쟁시기에 인민군 대대의 선동원으로 근무 중 1952년 복학하였다. 그는 1954년 체코 프라하공대에 유학한 후 1957년 귀국하였고 희천기계공장 기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한성룡은 1960년 당중앙위 중공업부 지도원, 1965년 중공업부 과장, 1968년 부부장, 1970년 제2기계공업성 부상, 1971년 제2기계공업상, 1972년 정무원선박기계공업부장, 1976년 당중공업부장, 1988년 당비서 등 당정의 중공업계통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80년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6년 당중앙위원, 1988년 당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쳐 1990년 5월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하였다. 김정일은 그를 88년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시켰다.

둘째, 한성룡은 김정일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해 가는 시기에 정무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김정일과 친근하게 되었다. 그는 김정일의 정무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당부장, 비서로 고속승진하였다. 당의 경제노선을 국가부문에서 실현하는 지위인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한성룡은 당과 국가경제정책을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성룡은 통계숫자에 밝으며 대체로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영림

양강도 출신인 최영림(67)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영림은 철도노동자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해방 후 공산청년동맹 열성분자로 활동함으로써 등용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그도 엘리트코스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53년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최영림은 최고권력기구인 당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 국제사업부로 이동, 부부장을 맡았다. 그는 이후 1967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1970년 김일성 책임서기, 1973년 당중앙 주석부장 겸 총무부장을 맡아 김일성과 김정일 비서실 전체를 총괄하였다. 최영림은 1983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84년 4월 정무원 제1부총리, 1985년 10월 부총리 퇴임, 1990년 5월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역임한 후, 1992년 12월 금속공업부장에 등용되었다. 한

편 그는 1970년 당중앙위원, 1980년 정치국후보위원에 선출되었다. 1981년 정치국위원에 선출되었으나 1985년에 정치국에서 제명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 5월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재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최영림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공헌하였다. 그는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시절 연안파제거를 위한 반종파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즉 1956년 8월 전원회의 당시 연안파들의 반당·반혁명적 음모를 폭로하는 보고서의 초안작성자가 최영림이었다. 최영림은 국제사업부 부부장시절 김일성의 공식·비공식 해외출장을 수행하면서 연설문, 외교문서 작성을 맡았다. 김일성은 1967년 박금철·이효순 사건때 최영림을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임명하였고 최영림은 갑산파의 반김일성활동을 수습하는데 공을 세웠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책임서기에 발탁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정일과도 김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홍성남

강원도 출신인 홍성남(7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성남은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와 체코 프라하공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해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유학 후 그는

당중앙 중공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중공업부문에만 종사해 오고 있는 중공업전문관료이다. 1954년 중공업부 지도원 과장, 1957년 구성공작기계공장 지배인, 1964년 당중공업부 부부장, 1971년 당중공업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홍성남은 1957년 이후 공작기계 1만대생산과제를 제기한 김일성의 교시를 성실히 수행, 김일성의 신임을 받았다. 1973년 9월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맡아 북한경제 발전에 공헌한 후 1975년 부총리, 1977년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서 각각 퇴임하였다. 1978~81년까지 주석부 참사실장으로 김일성 측근으로 봉사한 후 1982년 2월 평안남도 경제지도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1985년 9월 정무원으로 복귀,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86년 2월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맡았다.

홍성남은 1990년 5월까지 부총리 자리를 유지한 채 국가계획위원장 임명·해임을 반복한다. 한편 그는 1978년 당중앙위원, 1986년 12월 당정치국원, 1989년 정치국후보위원에 등용되었다.

둘째, 홍성남의 특징은 1973년부터 1977년까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국가계획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북한경제계에서는 필수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홍성남은 연임까지 포함, 국가계획위원장을 4차례나 역임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홍석형

충북출신인 홍석형(?)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1993년 12월 국가계획위원장에 전격적으로 발탁된 그는 소설 「임궏정」의 저자 홍명희의 손자이고 홍기문의 아들이다. 홍석형은 1984년 11월~1985년 11월 금속공업부 제1부부장, 1988년 9월 이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6년 2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12월에 일약 국가계획위원장으로 발탁되었다. 홍석형의 전격발탁은 1993년에 채택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관철을 위한 ‘쇼크요법’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일성은 현직기업소에서 실무를 익힌 간부를 발탁하도록 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일은 아니다.

연형묵

함북출신 연형묵(65)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형묵은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대학 이공학부를 졸업, 체코프라하 공대에 유학함으로써 권력엘리트가 보유해야 할 학벌을 모두 갖췄다. 또한 그는 김일성과의 인

간적 친분관계 등 최고의 성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형목은 1955년 귀국 후 권력핵심부서인 당조직지도부 지도원을 시작으로 1960년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을 지냈다. 1962년 당중공업부 부부장직 보임을 시작으로 그는 전공인 중공업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연형목은 1968년 중공업부장, 1970년 중공업비서를 거치면서 중공업분야 최고전문가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1974년 12월 당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당의 신진세대로 일찍이 등장하였다.

둘째, 연형목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김정일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함으로써 김정일과의 친분도 돈독하게 되었다. 즉 그는 1974년부터 3대혁명소조 중앙지도부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김정일의 신임을 획득하였다. 연형목은 1979년 당비서로 복귀한 후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위원 및 비서에 유임되었다. 그는 1985년 10월 정무원 제1부총리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였으나 1986년 12월 당비서로 복귀하였다.

셋째, 연형목도 철직경험자이다. 그는 1988년 12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하다 1992년 12월 총리직에서 해임되었고 당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면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하방되었다. 물론 중공업전문가인 연형목이 군수공장이 발달된 자강도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침체 책임을 지고 강등된 것만은 확

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관희

평남출신 서관희(73)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관희는 모스크바대학 출신자로서 권력엘리트를 위한 기본성분을 확보했다. 1954년 평양시 인민위원회 농업부장을 시작으로 농업분야에 투신한 이래 40여 년 동안 농업분야에만 종사해 온 북한내 최고의 농업전문가이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부총리를 역임한 후 1982년 당농업담당비서로 임명되었다.

둘째, 서관희는 김일성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주체농법의 실질적 창안자이다. 그는 벼농사, 강냉이 농사 시험재배, 강냉이 영양단지 재배법, 벼냉상모 육성법, 각종 종자의 시험재배 등을 실시, 성공을 거듭으로써 김일성을 만족시켰고 이것이 그의 확고한 권력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전형적인 당관료이다.

김 환

평북출신인 김환(67)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환은 김일성의 빨치산동료였던 김혁의 아들로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독일 칼막스공대를 졸업한 북한최고의 성분소유자이다. 따라서 김환의 권력엘리트 진입은 순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57년 귀국 후 내각 중공업성 산하 화학공업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1962년 당중공업과장에 임명되면서 당중앙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김환은 1968년 내각 방직제지공업성 부상을 거쳐 1972년 12월 정무원 화학공업부장에 취임해 이 분야의 1인자가 되었다. 김정일과의 인연은 1974년 10월 당중앙학교 교육부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그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 및 비서로 선출되고 1982년 4월 중앙인민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에도 선출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둘째, 김환도 정치적 시련을 경험하였다. 그는 개방성향의 선두적 인물이다. 김환은 지난 1980년대 초(1982년?) 당비서 시절 김정일과 함께 양강도 김정숙군에 중국식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다 김일성의 반대로 좌절당하였다. 이후 그는 약 1년여 동안 당비서에서 철직당하였다. 또한 김환은 1991년 화학공업부장 시절 본주의식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을 주장하다가 철직되었다. 김환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분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자본주의 국가의 협력강화, 경공업 및 수출우선정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를 접한 김일성은 동년 12월 김환

을 안주청년화학공장 노동자로 좌천, 1년간 노동자생활을 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1992년 12월 김환을 다시 부총리로 기용하였다.

김복신

평북출신인 김복신(71)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복신은 기본계급인 방직공장노동자출신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녀는 1958년 내각 경공업성 부상, 1960년 당경공업부 부부장, 1961년 내각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1971년 내각 방직공업상, 1972년 정무원 경공업위원회 피복공업총국장, 1981년 부총리, 1982년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등 주로 방직공업과 경공업 관련 직책을 맡음으로써 북한내 최고의 경공업전문가가 되었다.

둘째, 김복신은 소련관료들과의 돈독한 교분을 통해 대소련 경제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노동자로부터 경제고급간부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군중노선에 강하고 그만큼 대중성이 높은 간부이다. 향후 당 경공업부장 김경희와 정무원 경공업위원장 김복신은 당·정협력을 통해 김정일의 경공업증시정책을 관철해야 할 ‘두여인’이다.

박남기

황남출신인 박남기(68)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박남기는 김책공대와 레닌그라드 공대를 졸업함으로써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경제통계 분야의 실력이 인정되어 김정일 경제고문을 맡는 등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1963년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 부국장, 1972년 내각 금속공업성 부상, 1976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1984년 당중공업부장, 1985년 당비서를 역임한 후 1993년 평양특별시 행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남기가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으로 전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반된 2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김정일이 평양특별시 경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 측근 파견한 것이라는 분석, 둘째는 박남기의 당내에서의 인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김정일의 책략이라는 분석 등이다.

이근모

평북출신의 이근모(70)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근모는 김일성종합대학, 레닌그라드공대를 졸업한 엘리트이다. 귀국 후 그는 1952년 당조직부장을 시작으로 각 도 당인민위원장, 중앙당비서, 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1986년 12

월에 강성산 후임으로 총리에 발탁되었다가 2년 만에 해임되었다. 과감한 개혁정책을 주장해 김일성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추측도 있다. 그는 1992년에 4년간의 공백을 깨고 함북도당책임자로 재기용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책임지고 있다.

사. 사회문화 분야

김병식

전남출신인 김병식(77)은 일본동북대학을 졸업한 후 1958년부터 「조총련」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72년 복송된 후 1982년 남조선문제연구소 고문을 역임하였고, 1993년 사회민주당 위원장, 1993년 부주석에 등용되었다. 한덕수의 매제인 김병식이 부주석에 임용된 것은 약화되어 가는 「조총련」 재건을 위한 김일성의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태복

함북출신인 최태복(67)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태복은 최고엘리트코스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

대학을 거쳐 동독 라이프치히공대를 졸업하였다. 1959년 귀국한 그는 당과학교육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하였고 1961년 함흥화학공대 교수가 되었다. 최태복은 화학분야전문가이자 당·정의 교육전문가이다. 그가 김정일의 측근으로 부상한 것은 1972년 경으로 당중앙위 학교교육부 과장 시절, 학생들 내에 김정일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그는 1976년 당학교 교육부 부부장, 1978년 정무원 고등교육부장 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정무원교육위원장 등을 역임, 교육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최태복은 교육분야에서의 김정일후계체제 확립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12월 당중앙위원 겸 비서로 발탁되었고 1990년 5월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었다.

최용해

황남출신인 최용해(52)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용해는 빨치산이었던 최현의 아들이고 김일성대학을 졸업하였고 해외유학을 하지 않은 국내파이다. 따라서 그도 역시 북한내 최고의 성분보유자이다. 최용해는 1980년 사로청 해외교양지도국장, 1981년 사로청 부위원장을 역임한 후 1986년 사로청 위원장에 등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둘째, 최용해는 노동당의 최대 전위기구인 사로청 업무에

만 종사해 온 자로서 300만에 이르는 사로청원들을 김부자
 이상화에 동원, 충성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일의 절대적 신임
 을 얻고 있다. 즉 김일성 사후 최용해는 각종 사로청대회를
 통해 자신의 충성과는 물론 사로청원 전원이 ‘총폭탄’이 될
 것을 강요함으로써 김정일의 신임을 얻고 있다. 그는 충성심
 이외에도 김정일과 연령 및 빨치산 2세라는 공통점이 있어
 서 김정일 정권하에서 계속 요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강성산·김환 등 경제분야의 일부 권력엘리트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이념·조직·군사 중심성향
 을 보유한 자들이었는 바, 현재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제한된 개방정책도 속도, 범위면에서 많은 논란과 제
 약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서 상론한 직능별 권력엘
 리트들의 개인성격 및 정책적 성향을 요약하면 <표 16>과 같
 다.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공식등장을 지연시킨 상태에
 서 김일성으로부터는 ‘유훈통치’를, 하위 권력엘리트들에게는
 <표 17>에서처럼 ‘위임통치’⁹⁰⁾를 실시함에 따라 북한 권력엘
 리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향후 김정일등장하
 에서도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상 위임통치관행은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김정일이 ‘위임통치’를

90) 대부분의 연설대행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임
 에 따라” 연설함을 밝히고 있다.

〈표 16〉 권력엘리트의 개인적 및 정책적 성격

당서열	성명	개인적 성격	정책적 성향
1	김정일	자유분방하고 통이 큼	중도적
2	강성산	과묵하고 합리적임	개방지향적
3	이종욱	차분하고 논리적, 청렴결백함.	중도적
4	박성철	솔직하고 노골적임. 방탕함.	중도적
5	김영주	음흉하고 잔인함.	보수적
7	김영남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음 강직하고 예리함.	보수적
8	최광	안정적이고 대인관계 원만함. 사무적임.	보수적
9	계응태	꼼꼼하고 융통성이 없음. 대쪽처럼 강직함.	보수적
10	전병호	성격이 급하고 활달함.	보수적
11	한성룡		중도적
12	서윤석	아침이 심함.	
13	김철만	신의를 없고 매우 괴팍함.	
14	최태복	학구적이고 외국어에 능통함.	
15	최영립	다정다감하고 겸손함. 두뇌가 명석함.	개방지향적
16	홍성남		중도적
17	양형섭	화술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함.	
19	연형목	호탕하고 유연함.	개방지향적
22	김기남		보수적

〈계 속〉

당서열	성 명	개인적 성격	정책적성향
23	김국태	두뇌가 명석하고 온화함.	보수적
24	황장엽	논리가 정연하나 권위주의적임.	
25	김중린	성격이 급하고 강압적임	
27	김용순	솔직하고 친절함. 활달하고 놀기 좋아함.	개방지향적
28	김 환	온화하고 소박함.	개방지향적
29	김복신	검소하지만 일에는 열성적임.	개방지향적
34	윤기복	소영웅주의적이지만 활달하고 머리가 명석함.	
35	박남기	급하고 정력적임.	중도적
38	현준극	고지식한 인테리	
40	이하일	통이 크고 대범함. 급하지만 소탈함.	
42	이창선	성급하고 사나움. 소신이 뚜렷함.	
43	오극렬	이론적임	보수적
44	권희경	과묵하고 조용함.	중도적
45	김경희	가무를 좋아하며 시원시원함.	개방지향적
46	강석승	학자적임.	
48	노명근	과묵함.	
50	김두남	꼼꼼하고 치밀함.	
51	백학림	신경질적임.	보수적
53	이용무	배짱이 세고 소탈한 성격	
59	정준기	점잖은 인테리 성향	

〈계 속〉

당서열	성 명	개인적 성격	정책적 성향
61	신상균	내성적이고 치밀함.	
64	강현수	호인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함.	
67	최문선	온순·침착하고 대중적 인기	
68	임형구	원만한 성격에 호인임.	
69	이근모	고지식한 성격, 원칙주의자	
70	현철규	결단력이 강하고 똑똑함.	
71	이길송	원만한 성격으로 대인관계 좋음	
73	이을설	무사안일주의로 무능함.	보수적
74	김광진	호탕하면서도 절도가 있음.	보수적
85	김일철	차분하지만 적극적임.	보수적
93	이봉원	조용한 성격에 친화력이 있음.	보수적
100	이몽호	말이 많음. 별명: 허풍쟁이	

출처: 이항구, 「김정일과 그 참모들」(서울: 신태양사, 1995);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中央日報社, 1995); 유영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統一經濟」, 통권 7, 8, 9호(서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서울신문사, 1995)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실시하면서 특정한 개인에게만 업무를 맡기지 않고 각 분야의 권력엘리트들에게 고루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파벌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면서 권력엘리트들의 충

〈표 17〉 김정일 연설 대행자

시 기	당서열	성 명	직 책	행 사
1994. 7.20	7	김영남	정치국위원	김정일 추모사
1994. 7.27	9	계응태	정치국위원	전승41돛 기념사
1994. 9. 9	16	홍성남	정치국후보 위원	공화국 창건 46돛 기념사
1994.10.11	2	강성산	정치국위원	단군릉 준공사
1994.10.16	22	김기남	당 비 서	김일성 100일 중앙추모회
1994.12. 9	11	한성룡	정치국위원	정춘실운동 선구자대회 보고
1994.12.16	32	장 철	당중앙위원	재일동포 귀국실현 35돛 기념보고
1994.12.24	8	최 광	정치국위원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취임 35돛기념 보고
1995. 1.22	96	최용해	당중앙위원	김일성 「광복의 천리길」 보행 70돛 기념보고
1995. 2. 8	16	홍성남	정치국후보 위원	김일성 청산리 방법 창조 35돛 기념보고
1995. 2.16	9	계응태	정치국위원	김정일 53돛 생일 경축보고
1995. 3.10	14	최태복	정치국후보 위원	권영벽 등 공산주의 혁명투사 서거 50돛 추모사
1995. 3.16	74	김광진	당군사위원	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보고
1995. 4. 5	32	장 철	당중앙위원	인민보건법 발포 15돛 기념보고
1995. 4. 5	17	양형섭	정치국후보 위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2돛 기념보고
1995. 4. 9	74	김광진	당군사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취임 2돛 경축보고
1995. 4.15	7	김영남	정치국위원	김일성 83돛 생일기념 보고

〈계 속〉

시 기	당서열	성 명	직 책	행 사
1995. 4.25	8	최 광	정치국위원	군창건 63돐 경축보고
1995. 4.30	11	한성룡	정치국위원	「5.1절」 105돐 기념보고
1995. 5.18	14	최태복	정치국후보 위원	「광주인민봉기」 15돐 기념연설
1995. 5.24	27	김용순	당 비 서	「조총련」 결성 40돐 기념보고
1995. 6.14	14	최태복	정치국후보 위원	김철주 서거 60돐 추모사
1995. 6.19	7	김영남	정치국위원	김정일 당중앙위 활동시작 31돐 기념보고
1995. 7. 8	14	최태복	정치국후보 위원	김일성 사망 1돐 중앙추모 대회연설
1995. 7. 8	17	양형섭	정치국후보 위원	김일성 사망 1돐 중앙추모 대회연설
1995. 7. 8	75	김정각	상 장	김일성 사망 1돐 중앙추모 대회연설
1995. 7. 8	96	최용해	당중앙위원	김일성 사망 1돐 중앙추모 대회연설
1995. 7. 8	3	이종옥	정치국위원	「금수산기념궁전」 개관기념 연회연설
1995. 7. 9	8	최 광	정치국위원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사
1995. 7.27	74	김광진	당군사위원	「조국해방전쟁승리」 42돐 경축보고
1995. 8.15	4	박성철	정치국위원	「조국해방」 50돐 경축보고
1995. 8.15	3	이종옥	정치국위원	「조국해방」 50돐 경축연회장
1995. 8.16	99	백인준	「문예총」위 원장	「대민족회의」 기초보고
1995. 9. 8	4	박성철	정치국위원	공화국 창건 47돐 기념사

성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小 結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정책적 성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직능간 권력엘리트들 성향도 큰 차이도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은 정치노선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이념적 노선차이 발생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고, 둘째, 권력엘리트들의 중첩적 지위보유로 인해 의견차이가 사전에 조정되기 때문이며, 셋째, 설사 상이한 의견을 내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공식매체는 물론 일상행동에서조차도 성향을 판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치이념적 성향이 아닌 경제발전 우선순위 내지는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숫적으로는 소수이고 정도도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념·조직·군사부문의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방지향적인 엘리트들의 입지가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정책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김정일 유일지배체제하에서는 권력엘리트의

성향이 실리주의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첫째,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둘째, 경제체제의 기본모순에 의해 북한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셋째, 김정일 개인이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은 제한적이고 신중한 개방정책을 채택하리라고 예상되지만 개방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조응할 권력엘리트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⁹¹⁾

결국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충성심과 당성에 토대한 전문가의 등용은 이념적·체제적 이유에서 우선시될 것이 분명하지만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방적응적 내지는 개방지향적 전문가 등용 또한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91) 金 鉢, “北韓權力엘리트 充員에 관한 研究”(建國大學校大學院 行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2), p. 161.

第 V 章 結 論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유혼 및 위임통치’ 시대의 북한 권력 엘리트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권력엘리트에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정권초기 강조된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적 토대로부터 충성심, 혁명의식 등을 강조하는 의식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누구나 출신계급에 관계없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만 높다면 권력엘리트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지주 내지는 舊인테리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 지속적으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권력엘리트에로의 진입요건 중 특정학교의 학력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사실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동구유학은 권력엘리트 진입을 위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자주와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이 해외유학과들을 중용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성분이 우수한 자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등 극히 소수대학출신자 중 충성심이 높은 자들만을 선별적으로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낸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내와 국외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대한 인식능력이 높은 해외유학경험자들은 향후 김정일시대에 전개될 개방정책의 적극적 지지자 및

실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친인척이 상위 엘리트그룹에 다수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개인회사’화된 북한에서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는 친인척 과다대표는 ‘선진된’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

넷째, 빨치산세대는 물론 빨치산 2세들이 상위 권력엘리트에 다수 등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빨치산은 북한정권의 정통성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빨치산 2세들의 등용 또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최고권력자 자신이 세습정권담당자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구호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빨치산2세들의 등용은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다섯째, 권력엘리트들의 당·정·군에 걸친 중첩적 지위보유 현상이 두드러졌고 특히 현역군인들의 상위지위로의 등용율이 매우 높다. 김정일 자신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현역 장군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유격대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군이 밀접히 융합되어 당군간 갈등의 여지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여섯째,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혁명2세대, 즉 전문지식을 갖춘 신진엘리트 그룹의 등용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빨치산세대의 자연감소,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전문가집단의 역할증대 및 그에 따른 수요 증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력엘리트 교체가 진행되고 신식교육을 받은 전문가집단의 등용

이 증대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전문가의 무분별한 유입을 통제하고 당성과 전문성을 갖춘 '2중관료'를 선택하고 있다. 아울러 세대교체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북한은 100위 이내 간부들의 연령을 50대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등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70~8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곱째, 출신지역은 비교적 균등하였으나 상위권력서열에 함경도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과다대표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은 '함경도제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지속하였다.

여덟째, 상위 권력엘리트들 중 정치적 탈락(철직)경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였다. 김일성·김정일은 1980년대 이후 처절한 숙청은 단행하지 않고 「당적지도」 내지는 철직형식을 빌어 일정기간 노동교화소에 보내거나 탄광, 기업소의 하급관리직을 맡도록 한 후 재등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북한 내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종파'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독특한 간부정책인 '광폭정치'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홉째, 권력엘리트들간 정책적 성향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은 정치노선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이념적 노선차이 발생가능성이 희박해 졌기때

문이다. 다만 경제발전 우선순위 내지는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전향적 의견은 개진되고 있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김정일 유일지배체제하에서는 보다 더 증대되리라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성은 중첩적 지위보유로 인해 당·정·군간 교류협력체제가 견고하고 친·인척, 빨치산출신과 그 2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특정학교 등 귀속주의적 충원원칙을 통해 부문간 엘리트들의 일체성이 강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상의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1974년 김정일 등장 이후부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중심의 점진적 교체원칙에 입각, 등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김정일 유일지배하에서도 대폭적인 세대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와 관련하여 정치노선상의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정책선택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미미하나마 개방지향적 성향의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의 충원방향은 개방정책 가속화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해 충성심을 기본으로한 경제전문가집단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정치권력자의 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숫적 증가가 체제개혁의 주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실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신세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장기적으로도 귀속주의적

권력엘리트 충원구조나 충성심 우선의 충원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김영수, 2004)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中央日報社, 1995.
- 康仁德 編. 「北韓政治論」.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 김남식·심지연 편. 「박헌영노선비판」. 서울: 두리, 1986.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1995)」. 서울: 서울신문사, 1995.
- 安澤源. 「新蘇聯政治論」. 서울: 博英社, 1987.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 와다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 이항구. 「김정일과 그 참모들」. 서울: 신태양사, 1995.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韓培浩. 「比較政治論」. 서울: 法文社, 1980.
- Harding, Harry.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 Putnam, Robert D.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6.
- Townsend, James R.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 Co., 1974.

2. 論 文

- 고병철. “북한의 정치변화.”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금속과학공업성 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1.3).”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며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북조선인민위원회 제40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6.20).”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79.

- .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당일군이 되자(중앙 당학교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 1947.6.7).”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당사업방법에 대하여(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당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2.26).”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당 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9.3.3).”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11.15~17).”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데 대하여(도당조직부장, 간부부장

- 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중앙당학교 제1회 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6.8.5).”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8.5).”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민족간부는 새조선 건설의 기둥이다(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7.1).”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북조선공산당 각급 단체장들의 사업에 대하여(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5.12.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 일군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새 조선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지방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 한 담화, 1945.9.2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제1회졸업식에서 한 연설, 1949.12.28).”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3.13).”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자체의 힘으로 우수한 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자(홍남공업대학, 함흥의과대학교직원들과 한 담화, 1953.10.18).”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1961.9.11).”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10.23~26).”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평안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창립스무돛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혁명가로 키우자(해주, 남포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68.9.5).”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만경대혁명유가족학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48.12.1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전국 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7.2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2.2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 .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11.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아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7.1).”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5.5).”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金 鉢. “北韓權力엘리트 充員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大
學院 行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2.
- 都興烈. “엘리트 形成과 循環.”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
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黨中央委 幹部會議 演說, 1980.1.6).”
柳世熙 編. 「오늘의 中國大陸」. 서울: 한길사, 1984.
- 吳明鎬. “中國 政治엘리트의 循環과 充員.” 「中蘇研究」, 제10
권 제1호 (1986 봄).
-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
춘 편.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 박용수. “북한체제 변화의 연구: 북한정치체계에 있어서 이
데올로기와 동원.”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서
울: 자유아카데미, 1978.
- 유영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統一經濟」, 통권 7, 8, 9
호. 서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전용헌. “북한의 정치체제.” 이은호·김영재.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최 성.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카니즘에 관
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
문, 1993.12.
- Breslauer, George W. “From Brezhnev to Gorbachev: Ends and
Means of Soviet Leadership Selection.” in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Winchester, Mass.: Unwin Hyman, 1989.

Welsh, William A.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 in Carl Beck, ed.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1973.

3. 其他

노동당규약 前文(1980년 개정).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1980~1994년).

북한헌법 제3조, 제76조, 제126조.

빈 면

附 録

빈 면

북한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	김정일	소련 하바로 프스크 1942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위원장, 인민군최고사령관, 인민군원수,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장남
2	강성산	함북경성 1931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대	당정치국위원, 정무원총리, 제9기대의원	빨치산 2세
3	이종옥	함북성진 1916	하르빈공대	당정치국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위원, 제9기대의원	해방전 좌익활동
4	박성철	경북경주 1913	일본상지대	당정치국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위원, 「조국전선」의장,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김일성의 4촌매부
5	김영주	평남 대동군 1922	모스크바종합대 학, 모스크바 고급당학교	당정치국위원,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위원,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동생
6	김병식	전남신안 1919	일본 동북대학	국가부주석, 중앙인민위위원, 조선사회민주당위원 장	조총련 출신
7	김영남	함북명천 1925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외교부장, 제9기대의원	
8	최광	함북 1918	만주대성중학교	당정치국위원, 당중앙군사위원, 국방위부위원장, 인민군총참모장, 인민군차수,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9	계응태	평남 1925	남만주대학 소련고급당학교	당정치국위원, 당비서국비서, 겸 제9기대의원 법제위위원장	해방전 좌익활동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0	전병호	함북성산 1926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위원, 당비서국비서, 당중앙위부장, 국방위원회, 제9기대의원	
11	한성룡	함북 1923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위원, 겸 당비서국비서, 겸 당중앙위부장, 겸 제9기대의원 예산위원회위원장	빨치산 2세
12	서윤석	평남 1928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치국위원, 평남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대의원	빨치산 2세
13	김철만	평남 1918	미상	당정치국후보위원, 국방위원,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14	최대복	남포 1930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찌히 공대	당정치국후보위원, 당비서국비서, 당중앙위부장, 제9기대의원	빨치산 2세
15	최영림	양강도 1929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후보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 제9기대의원	
16	홍성남	강원원산 1924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대	당정치국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제9기대의원	
17	양형섭	함남함주 1925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정치국후보위원, 제9기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의장	김일성의 고종사촌 매부, 김신숙의 남편
18	홍석형	충북괴산	미상	당정치국후보위원, 정무원국가계획위원 장, 제9기대의원	洪命燾의 洪손자, 洪起文의 子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19	연형묵	함북 1931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대	당정치국후보위원, 자강도 당책임비서 자결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대의원	
20	이선실 (女)	제주 1916	이화여전 금강학원	당정치국후보위원, 「한민전」부위원장, 제9기대의원	66년이후 3차례 남파, 지하당 조직공작 활동
21	김철수	미상	1945(?)	인민군 상장, 국가안전보위부장(?)	
22	김기남	강원 1926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 국제대학	당중앙위원, 당비서국비서, 당중앙위부장, 제9기대의원	
23	김국태	함북 1924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비서국 비서부장, 김일성고급당학교장, 제9기대의원	*金策의 장남
24	황장엽	함북길주 (또는 평양) 1923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비서국비서, 당중앙위부장, 「조평통」부위원장, 제9기대의원 겸 외교위원장	김일성의 조카사위
25	김중린	평북벽동 1924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당중앙위위원, 당비서국비서, 제9기대의원 겸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주 妻의인척
26	서관희	평남 1923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비서국비서, 제9기대의원	
27	김용순	평남평원 1934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비서국비서, 「조평통」부위원장, 조·일우호친선협회 최고고문, 제9기대의원 겸 통일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의 김전처, 숙의 김동생(?)
28	김 환	평북후창 1929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칼팜스공대	당중앙위원, 당정무원부총리 겸 화학공업부장, 제9기대의원	*김혁의 아들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29	김복신 (女)	평북 1925	중앙당학교	당중앙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제9기대의원	
30	김창주	평양 1922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정무원부총리, 제9기 대의원	김일성의 4촌 동생
31	김윤희	평남 1926	김책공대, 소련 레닌그라드공대	당중앙위원, 정무원부총리, 제9기대의원	
32	장철	경북 1926	일본 명치대학 일본 명치대학원 1년수료	당중앙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문화예술부장, 조선공연협회 회장, 제9기대의원	조총련 출신
33	공진태	평남 1925	일본대학	당중앙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 제9기대의원	
34	윤기복	함남북청 1926	서울 수송국교 경기중 4년중퇴 만주의전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경제정책 위원장, 제9기대의원	
35	박남기	황남해주 1928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당중앙위원,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제9기대의원	
36	전문섭	함북 1920	중앙당학교 소련군사학교	당중앙위원, 국가검열위원장,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37	유미영	평북의주 1920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범민련」 북측중앙위원, 제9기대의원	崔德新의 처
38	현준극	함남단천 1922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노동신문 책임주필, 기자동맹위원장, 제9기대의원, 당국제부장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39	원동구	함남정평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근로단체부장, 제9기대의원	
40	이하일	미상 1936	양강도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부장, 국방위원회,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41	김익현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 당중앙위부장, 인민군차수	빨치산 출신
42	이창선	전남 1925.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원, 당사회문화부장, 제9기대의원	
43	오극렬	만주 길림성 1928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소련공군대학	당중앙위원, 제9기 대의원, 당작전부장	*오중흡 의 아들
44	권희경	자강도 강계, 1928		당중앙위원, 당중앙위부장, 제9기대의원	
45	김경희	평양 1946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경공업부장,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장녀
46	강석승	평남평원 1923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역사연구소장,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외척
47	채희정	함남단천 1924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중앙위부장,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겸 예산위부위원장	
48	노명근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당중앙위 재정경리부장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49	전하철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제9기 대의원	
50	김두남	평북 1927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소련군사아카데미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51	백학림	남만주 1918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정무원사회안전부장, 인민군차수, 제9기대의원 겸 법제위부위원장	빨치산 출신
52	지창익	함북	중국 유학	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서기장, 중앙선거위 부위원장, 제9기대의원	
53	이용무	미상 1923	미상	당중앙위원, 정무원 교통위원장,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54	이지찬	평북	미상	당중앙위원, 정무원 전력공업위원장, 제9기대의원	
55	김창호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정무원 전자자동화 공업위원장, 조선공업기술총연맹 위원장, 제9기대의원	
56	이 석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정무원 선박공업부장, 제9기대의원	
57	박용석		소련철도대학	당중앙위원, 정무원 철도부장, 제9기대의원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58	이철봉	1936	만경대혁명학원	당중앙위원, 정무원 도시경영부장, 제9기대의원	
59	정준기	평남안주 1924	평양 숭실중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조평통부위원장, 대외문화연락위원장, 제9기대의원,	
60	황순희	1919	미상	당중앙위원, 조선혁명박물관관장,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61	신상균	1912	미상	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부장, 제9기대의원	
62	정하철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원, 중앙방송위원장, 제9기대의원	
63	김기룡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중앙통신사 사장, 국가공보위 원장, 제9기대의원	
64	강현수	평양 1925	중앙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원, 평양시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위원, 제9기대의원	김일성의 외종제
65	박승일	평남덕천 1922	중앙당학교	당중앙위원, 남포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위원, 제9기대의원	
66	김학봉	함북무산 1926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원, 평양북도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위원, 제9기대의원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67	최문선	황남은를 1926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중앙위원, 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위원, 제9기대의원	
68	임형구	양강도 갑산 1923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중앙위원, 강원도당 책임비서, 겸 당중앙위원회위원, 제9기대의원	
69	이근모	평북정주 1926	김일성종합대학 소련레닌그라드 공업대학	중앙위원, 함북도당 책임비서, 겸 당중앙위원회위원, 제9기대의원	
70	현철규	함북은성	만경대혁명학원 체코프라하 기계부문전문학교	중앙위원, 겸 당중앙위원회위원, 제9기대의원	함남도당
71	이길송	함남 1923	만경대혁명학원 레닌그라드공대	중앙위원, 양강도당 책임비서, 겸 당중앙위원회위원, 제9기대의원	
72	임수만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중앙위원, 개성시당 책임비서, 겸 당중앙위원회위원	*林春秋 의 아들
73	이을설	양강도 1920	소련 군사아카데미	중앙위원, 위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위원장, 인민군 호위총국장, 제9기 차수,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74	김광진	평양 1928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군포병기술 학교	중앙위원, 국방위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민무력부부장, 인민군차수, 제9기대의원, 남북군사공동위 촉탁위원장	빨치산 출신
75	김정각	미상	미상	중앙위원, 당인민무력부 인민군상장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76	오용방	함남 1930	만경대혁명학원 강건군관학교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상장, 남북군사공동위부위원장	
77	김명국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당중앙군사위원	
78	원응희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79	김격식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80	장성우	함북	미상	당중앙위원, 사회안전부 정치국국장,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겸 자격심사위원	*張成澤 의 형說
81	전진수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82	주상성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83	김영춘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84	조명록	만주연길 1922	만경대혁명학원 중앙당학교 소련유학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대장, 공군사령관, 제9기대의원	빨치산 출신
85	김일철	평양 1928	만경대혁명학원 체코대학 소련해군대학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해군사령관,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86	김룡운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87	강동윤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88	박기서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89	한인술	함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90	김하규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91	남상락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제9기대의원	
92	현철해	미상	미상	당중앙위원, 인민군상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93	이봉원	평북 1925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부국장, 인민군대장, 제9기대의원 겸 자격심사위원회	
94	김병률	평북 1926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체코프라하공대	당중앙위원, 상장	

순위	성명	출생지	학력	경력	비고
95	주성일	함남	미상	당중앙위원, 「직총」중앙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6	최용해	황남신천 1944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당중앙위원, 「사로청」위원장, 축구협회위원장, 제9기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崔賢의 아들
97	최성숙 (女)	미상 1914	미상	당중앙위원, 「농군맹」 위원장	빨치산 출신
98	김성애 (女)	평안남도	평양여자사범, 김일성종합대학 (해주여자사범 說)	당중앙위위원, 「여맹」중앙위위원장, 제9기대의원 겸 상설회의 의원	金日成의 후처
99	백인준	평북운산 1919	연희전문 2년 중퇴, 일본유학	당중앙위원, ‘문예총’위원장, ‘범민련’북측본부의장, 제9기대의원 겸 상설회의부의장	
100	이봉호	함북 1920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당중앙위원, 제9기대의원 겸 최고인민회의서기장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의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研究報告書 95-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10월 일

發行日 1995년 10월 일
